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도 하나님 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쓰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9월 26일 (토) 제 155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백인복음주의자들의 지지, “트럼프 돌풍” 몰고 있다!

#### NPR, D. 트럼프 인기에 편승... 지지 원인 분석과 향후 예측 보도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인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백인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기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파산을 4번이나 했고 두 번의 이혼 경력에 카지노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기는 했지만, 한 때는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해 충성심을 의심받고 있고 총기규제, 낙태, 동성결혼 등에 있어서 말을 바꿔 '정직' 신뢰도에서 지지율이 바닥인 트럼프가 지금은 인기를 얻지만 공화당의 2016년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엄중한 순간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분석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전세계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광대 같고 인종차별주의자이며 권위주의적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최근 2차 공화당 경선 예비주자들의 TV토론회 이후 한풀 꺾이긴 했지만 트럼프에 거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기대는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오바마 정권의 2차에 걸친 집권으로 변하지 않는 미국사회의 현 상태(Status Quo)에 불만과 식상한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돌풍에 편승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를 통해 미국 정계를 호령했던 크리스천 정치인들의 이미지와 희망을 보고 있다.

"NPR"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과 '기행'에도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를-물론 본선까지는 부족하다는 전제로-분석해준다(True Believer? Why Donald Trump Is The Choice Of The Religious Right).

### “본선까지는 부족하다” 전제 불구 대선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티파티 정책강령(“Take Our Country Back”) 연상 “구속적 메시지” 전달

도널드 트럼프가 알라바마 모빌 풋볼 구장 강단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지켜보기 위해 참가한 3만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바로 그는 신앙의 사람(?)이기에 백악관을 다시 기독교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이혼했고, 카지노 투자와 개발로 억만장자가 됐고, 말로는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한때는 낙태를 수용했다가 말을 바꾸고 그리고 거침없이 막말을 하며, 한 번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한 가장 비기독교적인 트럼프에게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기대가,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들 중에서 단연코 선두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적, 문화적 뿌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대선 캠페인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티파티의 정책 강령("Take Our Country Back")을 연상할 정도로, 트럼프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 거의 "구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이민, 외교 정책 그리고 공



공화당 경선주자 트럼프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환호 받고 있다

화당의 정체성에 대해 지금까지 대선 후보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관심을 가졌던 복음주의자들에게, 백악관이 그리고 미국이 다시금 기독교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이러한 "유사 기독교적 메시지(Quasi-Christianity message)"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3면으로 계속>

### 받은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

#### WSJ, 받은 선의 타인에게 갚은 '루지 해치 재단' 설립 배경과 선행 릴레이 보도

크리스토퍼 로빈슨(20세)은 뉴욕주 북부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현재 대학교 3학년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루지 해치라는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루지 해치는 유대계 독일인으로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2001년 뉴욕주 라이브록에서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의 인생행로가 우연히 마주친 이유는 비슷한 환경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로 매우 다른 이유로-두 사람은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루지 해치는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었다. 그녀는 사촌 오빠에게 받은 선의를 크리스토퍼 로빈슨에게 되돌려줬다. 크리스토퍼 로빈슨의 가족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가 거처로 사용하던 트레일러마저 철거됐다. 루지 해치는 크리스토퍼 로빈슨이 클래식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얼굴도 모르는 은인에게 장학금을 받는다. 부유한 졸업생이나 사회 지도층이 장학금을 모교에 기증하는 사례가 많다. 장학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훈훈한 미담이 적지 않다(The Student and the Stranger Who Helped Pay for College: Grateful for a favor nearly 80 years ago, Luzie Hatch passed it on decades later; today's many beneficiaries).

### 나치 피해 미국이민... 받은 도움 돌려주려 평생 모은 150만 달러로 장학재단 조성해

이 이야기는 루지 해치에게서 시작된다. 그녀의 가족은 베를린에서 유복하게 살았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루지 해치의 아버지인 에드윈 해치는 뉴욕주 알바니에 사는 형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은 알바니에서 방직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에드윈 해치는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76세였던 형은 그의 제안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리면서 미국인 수백 만 명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에드윈 해치는 꿈을 접었다. 형은 사망

했다. 3년 후, 상황은 더욱 암담해졌다. 24살이었던 루지 해치는 40대인 사촌 오빠(세상을 떠난 큰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방직 공장을 물려받은 상태였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루지 해치는 자신은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에 가면 바로 취직해서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사촌 오빠에게 호소했다. 사촌 오빠는 루지 해치를 미국으로 데려왔다. 사촌 오빠는 루지 해치에게는 보호자가 있다고 안심시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민국에 전달하고, 루지 해치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여행 경비를 송금했다. <2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사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 ats |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권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 회복해야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교회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철저히 낮아지며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런 고민을 담아, 1995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위를 위한 자리가 아닌, 현장목회 가운데 바른 신학적 분별력, 섬김의 리더십, 목회적 역량을 균형 있게 겸비한 목회자로 재무장하며 재현신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1) 성경연구와 설교, 2) 목회상담과 돌봄, 3) 신학과 목회와 문화, 4) 세 집중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코스웍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있을 '이머징 문화와 설교' 세미나의 경우, 월요일 수업을 공개강좌로 하여 재학생이 아닌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수업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머징 문화와 설교> 세미나 공개강좌  
Preaching Requires Paying Attention:  
Scripture, Context & Power

- 강사: **Mark Labberton** 교수 (풀러신학교 총장, 설교학) 통역지원 됩니다.
- 일시: **10월 19일 (월) 8am - 3pm**
- 장소: 풀러신학교 Payton 101호 강의실
- 참가비: \$50
- 온라인등록: [kadmin.weebly.com/word](http://kadmin.weebly.com/word)
- 전화/이메일등록: [KDMIn사무실 \(626.584.5651/kadmin@fuller.edu\)](mailto:KDMIn사무실@fuller.edu)
- 등록마감: 10월 14일(수)까지

**학위과정 개요**

-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웍 : 40학점 · 논문 : 8학점
- Tuition : 학점당 \$415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12월 정규코스웍 세미나**

예배의 이론과 실제 (12/7-11)  
(Todd Johnson 교수)





시론

은밀한 내면을 정결케 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피우세요 (Life is short, Have an affair)”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해 온 캐나다의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 사이트의 정보가 해킹당해 배우자 몰래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려는 가입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벌써 4명이 부끄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50여 나라의 약 3,7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인 만도 대략 66만

여명이나 되며 미국인은 약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 시대가 곧 말세의 표징인 음란의 세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자들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의 종교 분포도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들(47.8%)이라는 사실이다.

SNS에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는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샘과 니아 레이더(Sam and Nia Rader) 부부가 있다. 이들은 건강한 가족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성애 결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모델로 그려가고 있다. 이들은 정기 구독자만 36만 명을 소유한 인기 크리스천 커플이다. 그런데 이렇듯 건전해보이던 남편 샘이 은밀하게 이 불륜사이트의 회원으로 드러난 후,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받음’이란 동영상을 올려 자신의 잘못된 한순간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미시시피주 필딩턴의 제1 남부침례교회 목회자이며, 뉴올리안스침례교신학교(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수였던 존 김슨(John Gibson)은 지난 달 24일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해킹으로 폭로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그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직업을 잃을까 고심한 끝에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혁성경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의 수석 부총장인 R.C.Spraul Jr.는 이 웹사이트가 해킹되기 바로 직전에 이 사이트와 가입회원들의 부모덕성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그의 블로그에 “내 자녀들은 애슐리 매디슨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기를 바란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몰래서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죄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심판의 날에는 삭제(delete)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한 일을 숨길 방법이 없다. 아마도 남몰래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 숫자가 3천700만 명쯤 될 것이다”고 올렸는데, 이로부터 한달 후 가입 회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해킹이 난 것과 동시에 나의 죄도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무전(無錢)유죄(有罪)요, 유전(有錢)무죄(無罪)의 시대를 넘어 ‘유현(有絃)유죄(有罪)요, 무현(無絃)무죄(無罪)의 시대가 도래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듯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은밀한 음란행위들에 대해, 영국의 크리스천투데이 편집인 마크 우즈는 너무 쉽게 ‘용서’와 ‘죄사함’을 말하는 기독교의 ‘값싼 은혜’ 풍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명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이내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 얼마나 미안한지와 더불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적혀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쉽게 구워낸 떡이 쉽게 상하기 마련이다.

(9면으로 계속)

권징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회복돼야

리더십저널, 조너선 리먼 목사의 교회공동체 변화 위한 판단과 교정 실천 소개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까 봐 권징을 주저한다. 권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다. 또한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미명 아래 등록교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 교회를 옮길 때 발급하는 ‘이명증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고,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누군가를 쉽사리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행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도덕적 타락과 분절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허술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이단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교회론이 흔들리고 교인의 수평 이동은 늘어나며, ‘제도화된 공동체’를 떠나서 진리를 찾으려는 ‘하나안 성도’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일인데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캐피톨힐침례교회의 목사이며, 사우스이스턴침례신학교와 서던침례신학교의 강사인 조너선 리먼(Jonathan Remon)은 또한 나인 마크스(9Marks Ministries)의 편집장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지적하고,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에 특별한 구조를 규정하셨다. 그 구조가 바로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이다.

리먼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을 먼저 말한다. 바로 이 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은 오늘날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조에 관한 문제는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등록교인제도의 배타적인 경계선이 복음을 왜곡하므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등록교인제도(양의 문 지키기 요10:7) · 권징(매고푸는 권세, 마16:19) 꼭 필요 서로 죄에 안 빠지게 권면, 감독 역시 사랑...교정 사라지면 친목단체로 변질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의 구조는 복음으로부터 유기적이고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이다.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골격과 윤곽을 잡아준다. 이 둘의 적절한 시행이야말로 양의 문(요10:7)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매고 푸는 권세’(마16:19)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이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을 부르짖었다. 특히 칼빈은 사도적 권징의 완전한 회복이 없는 한 교회의 존속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권징은 성경적인 교회의 기초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등록교인제도와 권징에 관한 체계적인 신학이 필요하다. 지역교

회에서 교인의 권리를 지키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복음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를 제자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도는 서로의 삶을 빚어가고 교정하는 수많은 사랑과 권징의 행위를 통해 생겨난다. 소그룹이 매주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립될 수 없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도에는 권징, 즉 판단과 교정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서는 권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자도마저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죄성에 굴복하는 것이며,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죄인들은 판단 받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로 몰든 세상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느 길이 옳은가에 대한 가르침 자체가 무의하다고 가르친다. 서로 권면하고 교정하는 일이 사라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모인 소그룹이 말씀을 통해 서로를 변화시키고 빚어가는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상호존중”만 남아 친목단체로 변질된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권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근신명령이나 수찬정치, 출교 등의 권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교회 내에 불법과 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눈감고 아무도 그것을 교정해 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편함 수준을 넘어간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소그룹 내에서 판단과 교정이 잘 이뤄진다면, 권징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불편함과 상처의 문제와 권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영적 타락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교회 내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선은 바로 공식적인 권징까지 가기 전에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권징이 중요하다. 소그룹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권징이 수시로 이뤄진다면, 그리고 소그룹에 속한 지체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충고로 이뤄지는 비공식적 권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뿌리내린다면 당연히 공식적인 권징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권고할 때 회개한다며, 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소그룹 환경에서) 권했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굳이 교회에게 말하는 공식적 권징까지는 이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마18:15-17 참조).

결론으로, 교회공동체나 소그룹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만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권징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소그룹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제자도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권징은 마음에 부담을 준다. 또, 누군가 우리를 교정할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감독하는 것 역시 “사랑”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받은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

〈1면에서 계속〉  
미국에 정착한 초기에 그녀는 여가 시간이 나면 독일에 남아있는 친지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치 정권의 악정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독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탄원서를 미국인 사촌 오빠에게 보 여줬다. 그녀는 이민국 직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서류를 확보하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이복 동생은 결국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유통업체 임원 출신인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공장에서 목재 완구를 만들었다. 많은 가족과 친지들의 미국행은 성사되지 못했다.

루지 해치의 직장동료들과 친지들은 그녀가 독일에 남은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루지 해치의 새어머니 쪽 친척인 베라 부르스트는 “고인이 이렇게 연민이 많은 분이 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베라 부르스트는 지적이고 독립적이며 매우 검소한 사람으로 루지 해치를 기억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루지 해치는 한 번 썼던 티백도 재활용하고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잡지와 담요, 베개도 간직하는 절약의 여왕이었다. 베라 부르스트는 루지 해치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소박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루지 해치는 살아생전에 많지 않은 수입을 투자해, 150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 세금 정산 시기가 돌아오면 루지 해치는 쇼핑백 한가득 영수증과 서류를 담아 법률

대리인인 스티븐 솔로몬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루지 해치에게 호감을 갖게 된 스티븐 솔로몬은 다른 선약이 없으면 유월절을 자신의 가족과 함께 보내주지 않겠냐고 초대했다.

루지 해치가 눈에 띄게 노쇠해져서 혼자 원룸 아파트에서 지내기 힘들어지자, 스티븐 솔로몬은 그녀를 자신의 집 근처 양로원으로 모셨다.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유산과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녀는 화상해달라며 유해는 어디에 뿌려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현재 그녀의 유골이 담긴 할아리는 스티븐 솔로몬의 사무실에서 보존되어 있다.

그녀는 유산 150만 달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에드윈 해치 재단’을 관리하는 로저 블래인은 “루지 해치는 청년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겠다고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단 직원들은 자신들의 모교 세 곳(범윌턴 대학교와 리하이 대학교, 클락슨 대학교)을 기탁처로 정했다.

현재까지 약 80만 달러의 장학금이 23명에게 수여됐다. 재단은 그녀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장학금이 없다면 학문의 꿈을 펼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했다.

이런 경로로 크리스토퍼 로빈슨도 루지 해치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뉴욕주 워렌스버그에서 사납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의 진로상담 교사인 사라 랜더스는 클락슨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받았지만 7,338달러가 모자랐다.

사라 랜더스는 클락슨 대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정중히 묻는 편지를 보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편지에 썼다.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5년 11월 30일 / November 30, 2015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hrhiew@sbcglobal.ne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복 회계: 홍순백 / 서기:김정경/ 홍보담당:이상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훈**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백인복음주의자들의 지지, "트럼프 돌풍" 몰고 있다.

(1면에서 계속)  
트럼프는 다른 여자들을 위해 두 번이나 아내를 버린 습관적인 간음한 자로, 한 번도 사죄를 구한 적이 없는데도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열망을 대변해줄 수 있는 아이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러셀 무어 남침례교 종교 자유와윤리위원회장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무책임한 인물이며, 여성들에게도 거친 말을 하며,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인종 분리를 서슴지 않는 위협한 발상을 하기에 복음주의 노선에 부합되지 않는 후보라는 것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한마디로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 이상이다. 현재 트럼프는 소위 "바이블 벨트"인 남부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블 벨트의 심장부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부터 복음주의 진영의 상징인 밥스톤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인 악마와 대몬들을 질타하는 트럼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에 검증되지 않은 신앙 노선을 잘 모르도 있다는 것이 맹목적인 추종의 문제이다.

실례로, 트럼프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작은 포도주를 정말 작은 크래커와 함께 마셨을 때, 사회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종종 참여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결케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화당 예비 경선 구도에서, CNN 설문 결과, 유명한 신경외과의사인 벤 카슨(안식교인)이 바짝 추격하자(28%), 트럼프(32%)는 갑자기 성경과 신앙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다. 즉 성경이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며, 자신이 장로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친구와 성경의 차이도 모르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을 말하지 못한다. 다만 벤 카슨을 견제하기 위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장사숙(?)으로, 신앙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나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천들이 주종을 이루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33% 지지로, 벤 카슨(13%)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침례교 목사이자 전 알칸사스 주지사인 허커비, 목회자의 아들로 보수적인 신앙이 분명한 크루즈와 워커 주지사,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샌토럼을 가볍게 따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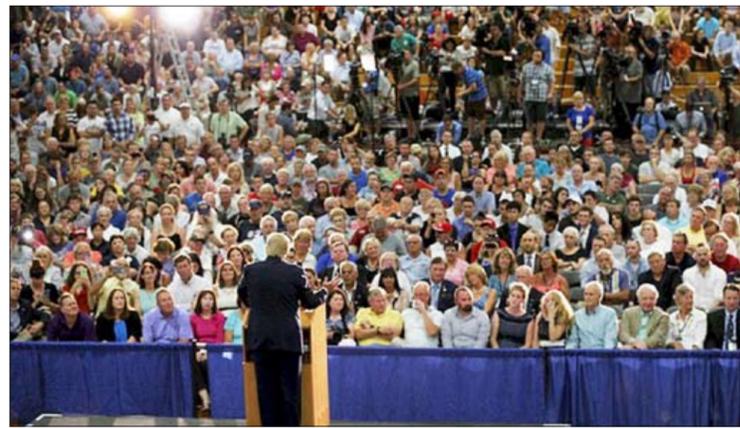
이러한 기현상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트럼프가 바로 공화당의 존재 기반이자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의 근간이었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무시되고 있는 현 공화당 구조에 트럼프를 통해 대리 만족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의 분석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공화당 어느 후보들도 감히 시행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담대

함과 정직(?)이 지지를 받고 있다. 비록 막달이고 거칠기는 하지만 미국의 현 실정에 대해서 불호령을 내리는 트럼프에게서 정치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를 미워하는 대신, "기도 체인"을 가동해 경선과정을 통해 트럼프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운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정도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지에는 지난 7년 동안 미국 사회를 진보적 사회로 만든 오바마 정권에 대한 영적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 단적으로, 동성결혼이 연방헌법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열망이 트럼프에 투영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바로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태를 지지했고, 두 번이나 이혼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없고, 동성결혼에 대한 도덕적 확신도 의심되며, 심지어는 출석하는 교회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말로만 크리스천"인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고 있다.



결론으로, 트럼프의 인기 비결에 대한 주된 분석은 기성 정치권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질려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에 이미 미국 대통령을 했던 클린턴 가문과 부시 가문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19명의 후보자 중 16명이 전 현직 주지사, 상원의원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실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거침없이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고 일부 공화당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인기 연합주의적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상승의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일종의 "정치 쇼"나 "정치 엔터테인먼트"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정치계에서 도태된다. 인기나 지지도 측면에서 1위를 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에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거라는 뜻은 아니다. 그 뒤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미 언론이나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기억해야 할 요점들은 다음과 같다.

기반: 공화당의 '현존하는' 힘 대부분이 현존했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의회를 지배하고 있고, 명목상으로는 대법원도 장악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백악관을 되찾을 기회를 보고 있으니, 워싱턴 전

체의 통제력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망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들이 후보를 고르는 데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결국 고르긴 고를 것이다. 그리고 고르고 나면 트럼프는 처분할 것이다.

개인 유권자들: 트럼프는 이제까지 대규모 집회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그의 승리에 있어 필수적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는 예측할 수 없는 1대1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에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그는 못된 말로 선거 라이벌을 몽골 수는 있지만, 개인 유권자들에게 감히 그러지는 못한다. 교황처럼 발을 씻어주는 미국 정치의 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의 핵심 메시지: 트럼프의 불길을 일으킨 불꽃은 인종적, 민족적 공포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질문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멕시코 불법이주자 상당수가 마약 딜러이고 강간범이라고 주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발언들은 그에게 기반이 돼주지만 제한적이다.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트럼프의 증오 메시지로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수들: 그 누구도,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캠페인 내내 실수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는 실수를 할 것이고,

독선적인 자세 때문에 실수는 확대될 것이다.

공화당 전당대회: 공화당은 2016년 7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번에는 클리블랜드에서 확정대회가 열린다. 공화당의 다른 후보인 오하이오 주지사 존 케이시의 뒷발이 있고, 과격한 정치적 변화의 온상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다. 트럼프가 그때까지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퀵 큰 룬스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총선거: 미국 대선의 특이점 중 하나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주요 당내 후보를 정하는 데 몇 개월이나 더 긴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들은 패배한 극단적인 후보들에 비해 보통 더 제정신이고 온건한 사람들이다. 미국 정치를 조종하는, 다행히 아직도 강력한 중도주의의 흔적이다. 총선거는 2016년 11월에 시작된다.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어찌어찌 승리한다 해도,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비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까지 간다면, 그런 일까지 해낸다면, 그때는 그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 수 없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원로로 살아가기(3)

원로는 죽어도 원로다

목회 성과를 떠나 20년이나 30년 한 교회를 지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흔적과 자취, 영향력과 숨결이 이곳저곳 배어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후임이 조금씩 걸려 흔적이나 업적을 지우려고 서두르면 반드시 그물망에 걸리게 된다. 원로는 죽어도 원로로 남기 때문이다. 원로목사를 경쟁자나 타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후임에게 특별 일이 하나도 없다.

영남지방 모 교회 목사가 장기목회를 접고 원로목사가 되었다. 후임으로 40대 젊은 목사가 부임했다. 후임은 원로목사를 아버지처럼 모셨고 원로목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쓰게 했다. 수년이 흐른 뒤 원로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후임은 1년 동안 원로목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그대로 보존했고 그 이후엔 원로 목사 기념실과 세미나실로 사용하고 있다.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 일은 후임자 자신의 목회에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본다.

문제는 내심이며 진실이다. 원로목사가 후임에게 눈엣가시가 된다든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후임이 원로목사를 가시나 장애물처럼 언행하면 명줄이 짧아진다. 두 관계는 타인이어도 안 되고, 경쟁자여도 안 된다.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원로들이 나라를 통치했다. 로마 시대로 회귀할 이유는 없지만 후임이 원로를 흠대하는 것은 바른 일이 못 된다.

인정하라, 그리고 배우라

원로의 목회가 화려한 여정이었다고 그대로 카피할 필요도 없고, 지지부진했다고 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전임자의 목회 노하우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대로 흉내 낼 필요도 없고 무가치한 과거사로 폐기할 필요도 없다.

말이 그렇듯 동일 교회를 20-30년간 섬긴 데는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가 있었을 터이며, 전수해도 좋을 다양한 접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공동품 창고로 집어넣고 새로운 교회, 새 비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며 서두르다 보면 심중팔구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

원로의 말 한마디가 후임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긍정적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 목회에 신에너지를 공급해줄 수도 있고, 타이어에 펑크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원로는 유감을 버리고 후임은 경계의식을 버려야 한다.

사람을 그리워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목회는 관계로 성립된다. 다양한 계층과 구성원이 포진하고 있다. 일단은 그들이 사랑스럽고 정겹고 좋아야 한다. 목회는 하나님이 위탁해주시는 거룩한 사역이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올곧게 이끄는 신령한 사역이다. 그래서 목회는 대상이 사람이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싫다든지 만남이 불편하다든지 소용이 불통이라던 자아목회는 가능하겠지만 다중목회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목회 주변에는 별별 사람이 많다. 원로에게 후임 약점을 보고하는 사람, 후임에게 원로의 일거일동을 고자질하는 사람, 그래서 양자 사이를 갈라놓고 득을 챙기려는 사람, '아니면 말고'라는 가치관으로 입을 열고 다니는 사람, 사사로운 옛날 기본이나 감정을 이따다 여기고 털어놓는 사람 등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갈 수 있다.

여기서 원로나 후임이 중심을 잃고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며 오해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 꼬이고 또 꼬여 결국은 영긴 실타래를 잘라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교수들의 세계, 선후배가 분명하다. 의사들이 세계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의 구분이 명확하다. 군인세계, 그곳은 계급과 서열이 철통같이 지배한다. 원로와 후임도 자기 자리를 찾고 정도를 걸으면 된다. 원로는 후임 때문에, 후임은 원로 때문에 목회엔퇴 후의 삶이 평안하고 가족 폐달을 밟을 수 있어야 한다. 이중첩자처럼 구는 거짓과 과장과 허위의 전령사는 멀리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필자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다. 정도가 아니면 걸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들어서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탈 없는 목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30주년 및 부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 일시: 2015년 10월 4일 (주일) 15:30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문의: Tel. 951-928-4415(기도원) 323-913-4499(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담임목사



이 임

고혜련 목사



취 임

이태준 목사

기도원 오시는 길

101 South 또는 I-5 South - 60 East - I-215 South Exit Nuevo Rd. - Manifee RT - Mountain LT - Gunther Rd로 진입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 콤플렉스(Complex)

한국어 사전은 콤플렉스(complex)를 '억압된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강박 관념'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래 콤플렉스라는 말은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Carl Jung)과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주로 심층심리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콤플렉스가 지나친 사람은 자기부정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병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콤플렉스 사회입니

다. 많은 현대인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메시아 콤플렉스, 학교 성적 콤플렉스, IT 콤플렉스, 영어 콤플렉스, 성공 콤플렉스 등 다양한 콤플렉스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중에 한국인들이 쉽게 빠지는 콤플렉스는 일류 콤플렉스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녀가 반드시 일류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학벌이 좋으면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얻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고 생각하기에 학벌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명문대 입학은 희생적으로 자녀 뒷바라지를 한 부모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서 삼류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는 자존심이 상하여 기가 죽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하며 동창회와 같은 모임에 불참합니다. 또 다른 한국인들의 콤플렉스는 외모 콤플렉스입니다. 한국인들은 의상과 유행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능력이다'라는 말처럼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입거나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 옷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모님의 체면 때문에 먼저 옷부터 사 입어야 한다

고 합니다. 이제 외모 콤플렉스는 옷에서 성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 몸매가 좋은 사람을 몸짱이라고 부르며 루키즘(lookism)에 빠져서 마음에 안 드는 외모는 과감히 의술의 힘을 빌려 고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집착이 부르는 성형수술의 남용 때문에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성형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한국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의 지하철마다 여기저기 크게 붙어 있는 성형외과 광고를 보면 이런 지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콤플렉스가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은사 콤플렉스, 영성 콤플렉스, 기도 콤플렉스, 결혼생활 콤플렉스, 성경 지식 콤플렉스, 모태 신앙 콤플렉스, 직분 콤플렉스, 등등 낮은 자

존감 때문에 나를 남과 끝없이 비교하게 하고 그 결과 수많은 콤플렉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사는 길은 없을까요? 먼저 콤플렉스는 사단이 주입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낮은 자존감의 콤플렉스에 빠지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콤플렉스에 묶여서 무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콤플렉스가 끝없는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약2: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나'인지 '남'이든지, 범죄자라고 강하게 말

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임을 부인하는 콤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엡 2:10).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하게 창조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아닌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사 43:4)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 푸 / 른 / 초 / 장

김수명 목사  
(타코마한인장로교회 원로)



미국의 저명한 뉴욕대학교 의대 세균박사 필립 티어노(Philip M. Tierno)는 대변 후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면 화장실 전역에 대변의 세균이 물과 함께 분무되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데, 면역력이 약한 분은 대변 속에 100여종의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염, 장티푸스, 폴레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발표했다. UN 세계 보건 자료에서도 매년 세계 인구의 200만 명이 화장실의 세균감염으로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는 것을 정상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모를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독버섯인줄 모르고 먹고 죽거나, 비울 때 눈이나 물이 얼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가져오고, 건축물의 붕괴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것도 얼마의 철근 굵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 뿐 아니라 글을 몰라서, 영어를 잘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등등 수많은 종류의 사고와 비극으로 후회하는 것은 따지고 보

면 결국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모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 왕 웃시야

하시며, 살게도 하시며 죽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존귀하게도 하시며, 비천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을 모를 때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되고 마는 것을 말씀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미스터리(Mystery)로 남아 있는데, 한 가지 거의 확실한 사실은 유대인은 폭파의 비밀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그 지역의 땅값이 폭락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들 떠 보지도 않았지만, 그 땅 주변을 유대인들이 모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뉴욕 최고의 관광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의 사람들과 교회 역사 속에서 남다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사야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1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practical atheist)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1권 제1장 1.2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사야 1:2-9)

와 하스기아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들을 4절 이하에 길게 말씀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신 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바로 아는 사람은 즉 영존하시며 전능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오사마 빈라덴에 의하여 폭파되어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뉴욕 1000만 인구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에서

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는 것을 믿고 알고,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바울도 그 외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성경에 신앙

를 좌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또 핍박과 탄압,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알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

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또 핍박과 탄압,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알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

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 또 핍박과 탄압,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는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알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국 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점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시33:12).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사30:21).

미국의 역사 뒤집어 놓은 2명의 대통령과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국을 건립하고자 발판을 만들던 무렵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미국헌법(U.S. Constitution, 가장 높은 미국법)에 올려놓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미국을 건립한 선조(fore-fathers)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본받아야 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베풀을 입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실지 참으로 암담해지는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국을 살펴

보십시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가 되었으며, 타임 매거진에 실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The First Gay President 첫 번째 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달 전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남자가 여성으로 바뀐 28세 사람)를 백악관 인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뽑더니 이번에는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 병역장관을 동성애자로 지명하였습니다. 미국 병역 장관자리로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Eric Fanning이고 이번엔 첫 동성애자로서 육군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Fanning은 1993년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공개했고 수년간 국방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좋아졌다고 하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지명은 오바마 정부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들의 권리를 세우주기 위해 계속 정책을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무려 523백만 달러가 넘는 미연방지원금으로 매년 지원해주고 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여 기독교정신인들이 많은 주정부에서 Planned Parenthood에 지원되는 주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런 주정부에는 미연방지원을 끊겠다고 협박을 보내고 있는, 참으로 미국 안에서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공산당적인 정치와 그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친이슬람 정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용한 2명의 고수 무슬림 정치인들(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의원이 됨)을 비롯하여, 친이슬람에 세뇌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중 간선선거 후부터는 정식으로 그동안

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이슬람이 온 세계에 미친 아름다운 영향들은 매우 크다”라면서 극적으로 미화시켜 왜곡된, 한쪽으로는 치우쳐진 친이슬람 교육을 지금 유치원생들부터 대학교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바마와 오바마 정부의 교육시스템 전략입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타임 매거진에서는 또 한번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의 Enemy (적), Traitor (배신자)라는 커버로 획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친동성애, 친이슬람적인 정치정책을 고발하였습니다.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오바마 정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t1spsc0316@gmail.com

Q: 저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 끝나면 한국에서 가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4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장하면서 결국은 한국목회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의 이민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고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상을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여야 하는지요? 혹은 이성적인 교회 상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A: 저도 과거에 한국목회를 꿈꾸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저를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사람을 다루는 사역이기에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환경은 조금 달라요. 목회자체는 어려움이 늘 따릅니다. 이성적인 교회 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삼상22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피난시절 중 아들람 굴에 은거하게 되었는데 아들람 굴은 베들레헴 동남쪽 4마일의 거리에 있는 요새지

### 가정같이 편하고 군대같이 강한 교회가 이상적

요 은신처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곳에 도망해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들람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때 아들람 굴에 함께 있었던 동지들이 다윗을 유력하게 돕는 충복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들람 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2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가정 같이 편한 교회(church like a sweet Home)입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찾아온 자들은 주로 환난 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빛진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처럼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은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의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찢기고 시달린 자, 상처 입은 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군대같이 강한 교회(church like a strong army)입니다. 아들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도 높은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이 훈련을 통하여 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인물이 인물을 만든다고 제2, 제 3,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패잔병 수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키워내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인들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훈련을 기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이민교회는 힘이 있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수를 뛰어넘어 행복함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존 케네디의 공립교내 기도폐지 시작, 오바마의 친동성애·친무슬림까지 기독교국가로 출발한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달라!” 외치는 현실 개탄

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 35번째 대통령인 존 케네디(John F. Kennedy)가 미국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뿌리 채로 뽑아내버리는 역사적인 최악의 첫 획을 1963년에 그었다면, 미국의 44번째 현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정부(주도 민주당)는 시민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뿌리채 뽑고자 최대의 시도를 할 뿐 아니라,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한 역사적인 최악의 두 번째 획을 긋는 대통령으로 세계역사 속에 기리 남을 인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만큼 반미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일에 있어서, “미국 역사상 최초, 처음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현 오바마 정부의 반기독교적 실행업 몇 가지만 고발

#### 친동성애 정부

존 F. 케네디 이후 오바마 대통령까지 5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은 채 7년도 안되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의 52주가 다

바꾸며 여러 지명을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동성애 커플에게 연방 혜택을 확장시켜주고 동성애자들이 군대에서 공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Fanning은 아직 상원의 동의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군대에서는 예수님 이름만 말해도 또 성경적 결혼을 믿는다고만 말해도 핍박받는 기독교 군인들이 계속 생겨나며, 그들의 “종교적 자유”는 박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생명의 존엄성은 땅 밑으로 박살-친태/태아살인 정부

그뿐 아니라 미국 안에 수많은 임신모들과 태아들을 살리고, 임박까지 도와주는 좋은 클리닉(Clinic)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그 정부는 부모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13, 14살짜리 십대아이들의 나이를 속이게 하여서 낙태를 실행할 뿐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낙태하고자 했던 태아들의 장기까지 빼내서 태아 장기들을 불법으로 시장에 팔고 있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사악하고 잔인한 낙태시술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두던 이슬람의 얼굴을 드러내 놓고 그들의 정치적 힘을 미국을 이슬람화 하는데 적극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의 하나는 미국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예언된 이스라엘을 늘 돕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는 이스라엘의 적군나라들을 미국 의원(0Congress)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연중 돕고 있었다는 발표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미국도 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이란에 엄청난 군사물자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적군 나라들(이슬람)과 손을 잡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오바마 대통령과 무슬림 의원들은 정치적인 힘으로 교육시스템을 흔들며 우리자녀들을 친이슬람으로 세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Common Core STD 라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집어넣으면서, 친동성애적 교육을 물론이거니와 친이슬람 교육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

들이 꼭 투표권을 소유해야만 하고, 꼭 대통령 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 “신앙의 자유를 달라!”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이던 미국에서 다른 종교의 자유는(특별히 이슬람) 존중해줄 뿐 아니라 흉부까지 대대로 해주지만, 유일하게 금지되고 말도 하지 못하며 줄줄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엄청난 역사별로 인해 감옥을 들어가는 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크리스천에 대한 “종교의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의 임무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는 선한 경주,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4절에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죄악이 흥행하는 것을 잠잠히 방관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마틴루터킹과 아이슈타인의 말을 나누며 마칩니다.

### 와이웬 코너스톤 영어권 영성훈련

## 여호수아제자학교 팩1

Joshua Discipleship School(JDS) Pack 1

- 일시: 2015년 10월 6일-29일  
화/수/목 저녁 7-10시
- 장소: **하은교회** (고훈 목사 시무)  
201-03 29th Ave. Flushing, NY 11360
- 대상: 영어권 청장년(18세 이상)
- 회비: 300불

#### 주제 및 강사

- ★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 (제프 프렛, 전 YWAM AXIOM 대표)
- ★ 하나님의 성품과 경외함 (빌페인, 전 YWAM 암스텔담 대표)
- ★ 하나님 음성 듣기와 제자도 (라모나머쉬, 전 YWAM 동부 지구장)
- ★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알렌 엘리웃, 전 영국 퍼스퀘어처치 담임)

문의/연락처: 와이웬 코너스톤 (T: 516-565-1052, 718-279-1052 jds@ywamcornerstone.org, bds@ywamcornerstone.org)

와이웬(YWAM: Youth With A Mission)은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세워진 초교파적인 국제 자비량 선교단체로, 복음의 헌신자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 교단, 성도와 협력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 인종, 국가들에게 전해져,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땅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YWAM 안에는 약 20,000명의 전임사역자들이 185개국, 900여개의 지부에서 헌신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와이웬 코너스톤(YWAM Cornerstone)은 국제 YWAM의 뉴욕 지부로서, 도시선교,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따라 땅 끝에서 도시로 온 열방의 민족들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며, 사회 전문 영역 가운데 헌신된 복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돕고 훈련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 바나바제자학교 팩1

- 일시: 2015년 10월 7일-30일  
수/목/금 아침 9시 반-12시 반
- 장소: **코너스톤 선교센터** (홈스트라 대학 근교)  
377 Jerusalem Ave. Hempstead, NY 11550
- 대상: 한어권(교회 지도자/직분자 환영)
- 회비: 300불

여호수아제자학교(JDS)와 바나바제자학교(BDS)는 국제 와이웬의 예수제자훈련학교(DTS)를 기초로 만들어진 단기 영성훈련 코스로서, 국제적인 열방대학 강사가오셔서 말씀과 함께 삶/선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십니다.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네팔의 림부(LIMBU)



종족의 하부 그룹이다. 림부족은 대체로 네팔 동쪽 Arun 강과 인도의 Sikkim 지역 국경 사이에 산다. 그들은 티벳-버마어인 Kirant 방

언을 사용한다. 림부족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몽골의 후손은 분명하다. 1700년 대 후반 네팔은 다양한 인종 그룹과 높은 카스트 계급 힌두 왕조 하에 공국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형성됐다. 이 정복은 림부족에게 인종적 문화적 균열의 결과를 가져왔다. 림부족은 비록 실제로는 13개의 림부 하위그룹이 있지만 "des limbu"(열개의 림부)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다섯 그룹은 인

도의 Banaras로부터 왔고 다른 8개 그룹은 티벳의 Lhasa로부터 왔다. 비록 다수 다른 씨족들과 종파들이 있어도 이 림부 하위그룹들 사이에는 사회적 불평등은 없다.

**삶의 모습**  
농업은 림부족의 주요 소득원이다. 쌀과 옥수수가 주요 작물이다. 경작지는 넓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해 생산력은 매우 제한되었다. 초과과잉작물은 그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는 음식이나 생필품과 교환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밭을 갈고 여자들은 씨를 뿌린다. 그러나 수확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작물을 수확한다. 대가족들은 수확기 동안 종종 서로 돕기 위해 하나가 된다.

림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네팔과 인도에 많은 남자들이 임대하는 것을 가지 있게 생각한다. 특별히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과거에 결혼은 가족들 간에 준비되며 신부 신랑은 그들의 결혼 비용이나 예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두 당사자들이 결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며, 법적으로 결혼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간통, 중매, 유교다. 간통의 경우 이전 남편에게 보상을 해야만 한다. 남편이 군대에 있거나 장기간 멀리 있게 되는 경우, 여자들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는 아니다. 음주와 춤은 림부족에게 매우 중

요하다. 결혼식, 장례식, 선물교환, 총들의 타협 등에서 다량의 술을 소비한다. 춤은 방문자가 마을을 오게 되는 경우 벌어진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되고 춤과 술을 즐기게 된다. 림부 사회는 부계사회이며 친족들은 씨족들을 이룬다. 한 씨족 구성원이 죽으면 전체 그룹은 오묘했다고 생각하고 모두 재정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신앙** 림부족은 불교도들이 우세하지만 유명한 힌두족제에도 참여한다. 그들은 피의 제사와 관련하여 많은 예배의식을 한다. 여자가 결혼할 때 어머니의 신들을 전수 받는다고 믿는다. 그 때 여자와 남편은 그들

가계의 신들로서 인식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고위 카스트 계급 브라만인 림부족 지역 이동으로 림부족은 대부분의 땅을 잃었다. 그들은 살고 경작하는 그 땅을 오직 보존하도록 돼 있다. 브라만들은 그들이 잃고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득을 취했다. 림부족의 눈에 브라만은 그들의 땅을 훔쳐간 무자비한 종이였다. 이러한 점은 그룹들 사이에 깊은 적개심을 유발한다. 림부족의 땅으로 인한 싸움은 그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72%, 동성결혼 거부한 법원서기 감옥행 찬성

켄터키 주의 법원 서기인 킵 데이비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법정 구속돼 6일간 감옥에 갇힌 후 석방됐고 현재는 일터로 다시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ABC 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여론조사기관 'Langer Research Associates'를 통해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1,003명의 성인(민주당 지지자 33%, 공화당 지지자 22%, 중도 35%)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데이비스가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데이비스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는 법 아래서의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으며 종교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강경 보수층과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평등과 종교 자유가 중요하다는 답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또 데이비스가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63%에 달했고, 반대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강경 보수층의 66%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61%는 데이비스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데이비스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72%가 찬성했으며, 이 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5%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자유주의자, 민주당 지지자, 비종교인들은 데이비스 법정 구속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SC, 1만여명 동성결혼·낙태 대규모 집회 참석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폴룸비아에 있는 주의회 앞에서 지난 8월 30일 열린, 동성결혼과 낙태 등에 반대하는 집회 "스탠드 위드 갓, 프로 패밀리 랠리(Stand with God, Pro-Family Rally)"에 1만 명이



상의 미국인들이 참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집회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주)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다수의 의원들도 참석해 신앙과 도덕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의회 계단에 모여 있는데 주일 아침 같다"면서 "미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부흥의 영이 휩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다. 미국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계획연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교단에서 회중들에게 생명에 대해 전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재정 지원 철회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종교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신앙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교회와 종교사학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세대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잘못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국의 건국정신이 좌파에 의해, 워싱턴D.C.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성경적 가치를 위해 일어나자.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새롭게 될 수 있다. 예수의 군사여,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도전했다.

팀 스코트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은 동성결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신의 가족과 신앙을 통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결혼에 대한 최고 법을 명령하신 창조주(Supreme Creator)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미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50개 주가 가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우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은 교회와 종교 단체들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집회의 목적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에서 5분에 1명꼴로 기독교인 순교

박해감시단체인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이하 CFI)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CFI는 오는 11월 8일 열리는 '국제 기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CFI의 짐 제이콥슨(Jim Jacobson) 회장은 15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이들이 박해에 직면한 와중에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박해자들이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를 달라"고 했다. CFI는 이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 중이며, 각 교회에 포스터와 안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주일학교 교재나, 박해에 대해 언급한 성경구절 등도 포함돼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 사회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 등을 포함한 기독교박해감시단체들과 활동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5분에 1명 꼴로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트로비네 박사는 지난 2011년 "매년 최소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IS로 인해 이 수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인 카리타스 이탈리아나(Caritas Italiana)의 통제도 이와 비슷하다. 이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교인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이른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비롯해 북한에도 약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매년 진행되는 국제 기도의 날 행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과 북한의 박해 문제 등에 대해 속고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이곳 미국에서 박해받

는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주, 포르노세 도입 추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10대 주 중에 하나이며 지난 2013년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로 조사된 앨라배마주가 '포르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금은 주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재정 마련을 마련코자 도입되는 것으로, 포르노 관련 상품이나 성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얻는 소득에 4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WKRG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2억 달러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포르노세" 안건을 통과시켰다.

잭 윌리엄스 하원의원(공화)은 이 세금이 성 관련 상품의 판매에 대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 관련 상품에는 책, 잡지, 신문, 출판물, 저작물,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에 이프, 이미지, 방송, 음성 서비스, 음란전화 서비스, 성 관련 장비나 장치,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 등 성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

윌리엄스 의원은 '죄악세(sin tax)'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주의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 관련 상품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윌리엄스 의원은 WIAT에는 "18세 이상이 이용하는 성인 관련 용품에는 부가적인 세금이 붙는다"면서 "담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포르노이고 포르노가 아닌지에 대해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주민들이 포르노세 도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여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윌리엄스 의원은 "상원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로버트 줄리안 벨리리 주지사(공화)도 지난여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Part Time)청빙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지도하실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
- 2) 신앙고백서
- 3) 자기 소개서
- 4) 추천서 2통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425-776-2711



TEL: 425-776-2711  
FAX: 425-774-2499  
YunhapChurch.org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장학생 선발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한인 크리스천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한인 대학생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 및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 \*일반학부와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인이나 교역자 자녀
- \*미국장로교(PCUSA)소속 교회 활동 교인은 우대함
- \*신청자는 워싱턴주 거주 세계 교인이거나 함
- \*신청학생 신청자는 미주전역 (ATS 인정신학교)을 상대로 모집함

### ● 신청방법

- \*시애틀연합장로교회웹사이트 (<http://www.yunhapchurch.org>) 자료실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신의 신앙생활 및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한 자기 소개서 형식의 에세이를 쓴 뒤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소속 신청자는 해당교회담당목사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1.신청서 2.자기소개서형식의 에세이 3.이력서
- 4.대학합격통지서(신입생의경우), 성적증명서(재학생)

### ● 신청마감

- \*2015년 9월 30일 교회도착분까지 마감. 최종 장학생 선발자는 10월중 개별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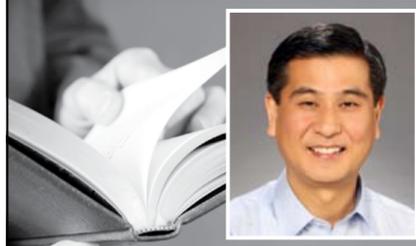
### ● 접수처와 연락처

- \*UPCS(장학위원회),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장학위원회 Steve Park(425-772-6566), DongEun Shin(224-489-6902)



TEL: 425-776-2711  
FAX: 425-774-2499  
YunhapChurch.org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7)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5)

역사 안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문화설의 영향을 받은 동양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앞으로 진행될 뿐이다. 그럼에도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의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사건 자체의 내용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대환란을 이겨내야 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 주의 교회는 반복적으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다.

질문: 핍박과 순교 상황에 대처한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협력인 대상으로 탈바꿈하였다.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정복하면서 로마제국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제들은 힘을 키우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 등을 동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황제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교회를 다루는 정책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에, 전제국 규모의 핍박은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차 박해가 종결되고 동시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교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기간 교회를 박해하던 황제들의 잔악함이 극에 달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처형하며, 로마제국을 망가뜨리는 원수로 삼아 치졸한 감정을 섞어 대하였다.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신앙인들을 죽였으며, 아예 신앙을 가지고 로마사

록 온갖 고문을 행하고 거부하면 불구로 만든다. 4)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다. 308년에 발표된 다스틴 제령은 매우 심각하였다.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그 제물을 먹도록 강요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신앙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불이익을 당해도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해가 심해졌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그만

### ■ 마지막이 보인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로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였다.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성도들은 순교, 배교, 또는 피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 놀라게도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순교를 각오하였다고 반드시 순교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다. 순교의 각오는 성도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그 중에 순교를 허락한 성도들만 순교의 잔을 마신 것이다. 핍박을 피해 신앙의 자리를 찾아 피신한 성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성경

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황제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다. 로마제국에서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당연히 콘스탄틴 대제를 먼저 생각하지만,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갈리예누스 황제(260-268)가 기독교를 합법적 승인하였다.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초기에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도 갈리예누스의 관용령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313년 역사적인 밀라노칙령이 선포되기 전, 교회는 더욱 어두움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짙은 어둠은 결국 마지막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방편이었다.

### 2) 성경이 보인다 - 이사야 60:1-9

모든 꿈과 희망을 점으려할 때가 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신앙의 문제도 예외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할 때, 신앙의

## 박해 심해졌다는 건 순교자 증가... 암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생각은 극히 인간적...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돼

### 1) 교회역사를 보면...

#### ■ 3차 박해기간

초대교회가 시작할 당시 로마제국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였다.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황제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견제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기독교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마황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항상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이외에도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군사력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기독교는 로마가 정복한 속국에 속한 다양한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였다.

앞서 우리는 2차 박해기간(98-249) 동안 황제들의 정책이 서서히 변화된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들이 종교를 신중하게 다루어왔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황제들에게 보잘 것 없어 보였던 기독교가 위

대. 그렇다면 3차 박해기간(249-313)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 양상이 생겨났다. 첫째, 2차 박해기간 동안 보였던 황제들의 정책이 달라졌다. 모든 황제가 항상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핍박 또는 평화를 선택하였다. 테키우스 트라야누스(249-251)와 발레리안황제(253-260), 그리고 디오클레티안황제(303-311)는 '초대교회를 핍박한 10대 황제'에 속한다. 그러면 이외의 다른 황제들은 어떤 태도 취했을까? 그들은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었거나 호의적이었다. 심지어 발레리안 황제와 디오클레티안황제도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나중에 마음이 변해 악랄한 태도를 보였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260년부터 303년까지 교회가 평화를 누리기도 있었다.

두 번째, 3차 박해기간의 규모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로마는 엄청난 규모를 지닌 제국이었다. 그만큼 조직이 뒷받침하여야 했다.

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였다.

### ■ 핍박이 심화될수록

테키우스 트라야누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발레리안 황제는 258년에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 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성도들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려 하였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마지막 황제에게 로마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 하였다. 303년과 304년에 걸쳐 모두 4개의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점점 그의 악독함이 더해졌다. 그가 작성한 칙령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상류층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공직을 박탈시킨다.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 중 신앙이 발견되면 노예로 전락시킨다.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을 박탈시킨다. 모든 교회를 파괴한다. 성경을 불살라버린다. 2)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불참이 투옥시킨다. 3) 감옥에 투옥시킨 신자들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도

금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어려움을 선택하였을까?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황제의 감정이 또는 공산당의 핍박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 수 있다. 온갖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칼과 총 앞에 무릎 꿇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순교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당당히 순교의 잔을 마신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속이고 배교를 선택하거나, 일단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핍박 상황을 피한 성도들도 있다. 이 세 가지 형태, 즉 순교, 배교, 또는 피신

이 허락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선택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적이 있으며, 1938년을 전후로 여러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이 길을 선택한 바가 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행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었다.

오직 복음의 힘을 바탕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어느덧 로마제국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황제들의 핍박을 통해 온 제국이 기독교와 친숙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 골고루 퍼져있었다.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과 심지어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지만, 그 피가 교회의 거름이 되었다. 일부 황제들이 온 제국을 칙령을 내리며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다른 황제들은 같은 방법으로 기독교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를 향한 황제의 결단이 절

활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아주 기초적인 불평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시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의 끝례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가 커다란 문제 때문에 깊은 영적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에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진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아무리 소망이 사라지고 사방이 어두워져도,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성도들은 313년 또는 1945년이 오기 전까지, 암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야 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것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운 이 세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 가정사역 칼럼

### 이혼 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 별거시 에너지 분배

한부모 가정의 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봐주고 나면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정서적인 영역에 85%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 버리는 거지요. 일어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움직이지조차 싫어요."

\*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에너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공식도 없고 쉬운 답도 없지만 전문가인 H.

노란 라이트에 의하면, 부부관계의 심도, 함께한 시간의 길이 등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22년 간 일만 천 시간의 카운슬링 경험을 통해 관찰한 바로는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대체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적인 영역에 85%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 버리는 거지요. 일어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움직이지조차 싫어요."

\*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에너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공식도 없고 쉬운 답도 없지만 전문가인 H.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려 하지 않고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어나려하고, 너무 빠르게 바퀴를 돌리려하면 결국 같은 사이클을 다시 반복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4.5년 걸려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6.7년씩이나 지연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야말로 이혼 다음으로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상담자를 찾거나 지원그룹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p><b>기타지역 교회</b></p>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 오전 10: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덴버에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경: 오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en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b>벤델교회</b></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종교개혁: 오전 10:00 (토) 오전 11:00 (일),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xkinton, MA 01748</p>
<p><b>살롱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 1부예배: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백스칼럼)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강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9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p><b>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47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n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비: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소열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사비: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윤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pcc.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 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토)</p> <p>www.jkcs.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8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성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화-금)</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성경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기도는 재물을 얻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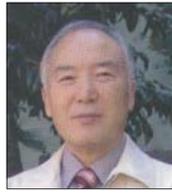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신8:17-18). 비굴하게 구걸하지 말고, 힘써서 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만물의 조성자요, 소유주이시며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정말로 아버지라고 믿어진다. 왜 거지처럼 구걸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걸하러 온 자처럼 비굴하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구하라.

주님이 말씀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2-14, 마7:7).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자.

기도의 중요함을 안다면 기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기도는 그 자체가 생산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0)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2)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계일교회 담임)

기술이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1주일 만에 1억원을 가져오겠는가? 기도하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알뜰한 잔머리 굴려 무엇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고 계좌번호 보내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

부끄럽게 무엇을 얻으려 온 것처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떳떳하게 부자이시니 우리 아버지께 당당하게 달라고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것뿐이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가만 보라.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

1995년도의 일이다. 우리 교회에 이슬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부족한 중을 위해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종의 몸이 낡은 대로 낡아 너무 약하니 보약을 지어주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내게 찾아와 한의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난 후 20여년 동안 아무리 아파도 약을 입을 대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고 살아왔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

한 5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린다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린다. 성경에 보면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왕상17:21), 히스기야왕은 죽을 병이 들어 죽을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며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다(왕하20:1-7).

1976년도의 일이다.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가 된 고양금 성도가 찾아와 고향 사람이 신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년간 죽을 날짜만 기다리다며 가서 고쳐달라고 했다. 고양금 성도의 아들이 아파 기도하여 낫게 된 일이 있었으므로 목사가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았다.

이야기인즉 이 사람은 고깃배 선장으로 돈을 많이 벌며 이제는 행복하게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신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년 동안 죽을 날짜만 기다리게 되었다고 한다. 찾아가 만났

기도 그 자체가 생산, 거대한 하늘의 보물창고 여는 열쇠와 같아

기도는 죽을 자도 살리고 고치는 기술...능력 있음 믿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잠이나 하든지, 공부나 더 하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마7:7). 결국 기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산적인 일이라는 말이다.

1986년도라고 기억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게 1억원을 주시면 그중에서 1천만원을 따로 떼어 시골에다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은 모이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대로 형편이 잘 돌아갔고, 또 그렇게 돈도 필요 없었던 때였다. 그런데 단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니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1주일 정도가 지나서 어떤 집사님이 1억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시골에 40평 정도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약 4천만원이 든다고 했다. 교회를 짓기 위해 사람을 찾고 또 그곳에서 시무할 교역자를 찾아보니 당시 시골로 내려갈 교역자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부산에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살뜰교회다.

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재미라고 생각한다. 기도는 돈 버는

이른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7-11).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정말로 기도는 돈 버는 기술이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써인하신 백지수표와 같고, 거대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 기도는 기도자체가 생산이요 실적이요. 이것을 알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에 투자하라. 그것이 좋은 것을 얻는 지름길이다.

기도는 살리는 기술이요, 고치는 기술이다

마가복음 16:17-18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했다. 이 말씀대로 나는 기도 병을 고치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믿는다. 세상에 의사가 많지

아 없으니 기도를 하는 집사에게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고 보약이라고 하니 한번 가보자 싶어 한의원으로 향했다.

부산 영도에 있는 00한의원으로 갔는데 얼마나 유명한 한의원인지 오전 9시 도착했는데 오후 2시30분밖에 내 차례가 가자고 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 병을 고쳐서 살려주시면 당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급한 심정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기를 동처럼 부여올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희미하게 바라진 눈빛으로 나를 흘려보았다. 아마 당신 같으면 이 형편에 무릎을 꿇겠냐는 뜻인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꿇여 앉혀놓고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라고 3번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냈다.

그때의 기도로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봉사하시다가 1999년도에 소천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을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죽을 자도 살린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분노의 사회, 배려의 성품으로 치유할 수 있다

증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거나 심지어 방화와 살인까지 범하는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 증간소음 이웃 사이센터에 따르면 증간 소음 상담 건수가 2012년(7021건)에 비해 2013년(1만 5455건)과 2014년(1만 6370건)에 급증하여 2년 새 두 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간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또한 이웃 사이에 갈등 요인들 가운데 하나다. 좁은 골목길에서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화끈이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는가 하면 주차단속에서 불만을 품고 포크레인을 몰아 파출소를 부순 사례도 있다.

이런 현상들의 밑바닥에는 서로 공감하지 못한 채 분노를 폭발해 버리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Frank Minirth)박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될 때 분노가 폭발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치가 무시당하거나 자기 보전 욕구가 박탈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할까?

여기에는 무엇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데 가령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해 자신은 정체하고 있다는 박탈감과 승자독식의 사회질서,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인한 불안감 등이다. 양육양식의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대사회의 부정적 감정들이 축적되어 분노의 양극을 형성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분노가 특별한 사건과 만나 자극을 받으면 결집을 수 없이 분출하게 된다.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공감인지능력이다. 공감인지 능력(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즉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능력"이다. 즉 공감인지 능력이 낮으면 타인에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함으로써 분노를 노출하기가 쉬워진다.

분노를 축적한 사회, 공감인지 능력의 부족 등 우리 사회를 분노의 사회로 몰아가는 오늘의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성품의 회복, 특히 '배려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배려의 성품이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람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피 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다. 진정한 배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배려라는 한자의 의미는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을 나누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채울 수 있다. 자기 배려가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채우려면 '기쁨의 성품'이 필요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겨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이 기쁨이다. 기쁨의 성품으로 높은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마련이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배려의 성품'을 갖게 된다. 공감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행동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데 다음 세 가지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감수성 강화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하기 등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언행뿐 아니라 숨겨진 생각과 감정에 귀기울이다보면 공감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나만 손해 본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시대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제도적 모순 등이 해결되어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 사람의 성품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자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새 회장 이의철 목사, 부회장 안명훈 목사 뉴저지교협 제29회 정기총회,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제29회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오후 7시 임마누엘성결교회(담임 박찬순 목사)에서 열린 신임 회장에 부회장 이의철 목사(뉴저지연혜제일교회), 목사 부회장에 안명훈 목사(아폴라연합감리교회), 평신도 부회장에 윤석래 장로(뉴저지연합장로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뉴저지교협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신임회장 이의철 목사, 세 번째가 부회장 안명훈 목사.

뉴저지교협은 총회현장에서 후보를 추천해 투표하는데, 회장은 관례에 따라 부회장 이의철 목사가 추천돼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부회장은 안명훈 목사가 단독 추천돼 박수로 당선됐다. 안명훈 목사는 부회장을 한 경험이 있으며, 개인사정상 연이어 회장이 되지 못한 바 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의철 목사는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저지연혜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뉴저지 교계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전하며, 뉴저지 교협이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회원 교회들의 협력과 참여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29회회의 표어를 “다 함께 참여하는 교협, 소통하는 교협”으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사업을 계승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합해서 지역복음화와 이단 침투를 배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이춘기 목사 사회로,

기도 윤석래 장로, 성경봉독 육민호 목사, 설교 이의철 목사(“저희가 믿음 보시고”, 막2:1-5), 축도 김정문 목사(증경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예배에 앞서 장학금과 기독 방송사 후원금 전달 그리고 기독청년들의 미니 콘서트가 진행됐다. 2부 회의는 이병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병준 회장은 신임회원 인준은 단지 회칙에 따라 2명이 추천한다고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 조사한 후 받아야 한다고 부탁했다. 28회기는 신년하례예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호산나대회 등 행사가 끝날 때마다 그 수익금으로 사회단체와 교계단체 및 교

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28회기 수입은 120,869달러, 지출 116,727달러로 보고됐다. 지출 내역을 보면 네팔 이재민 구호에 35,524달러, 단체 후원과 장학금에 21,000달러 등 56,623달러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했다. 임원선거와 신규임원 교체 후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각 교파의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자 △정기총회를 낮에 하자 △임원들을 신임 회장단에서 선출해 총회에서 인준 받게 돼있는 회칙이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4회 남가주 찬양합창제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 수준 높은 찬양...9개 팀 참여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34회 남가주 찬양합창제 성황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한 제34회 남가주 찬양합창제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20일 오후 7시 성황리에 열렸다. 서병호 회장은 “올해 합창제는 수준 높은 합창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 교회음악협회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가주의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힐링캠프기도원 창립 1주년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힐링캠프기도원 창립1주년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

한신원조회 청원권, 한길교회, 동부사랑의교회의 목사, 강도사, 장로 고시 청원권, 그리고 홀리왕성교회 PCA 한인서남노회 가임청원권 등을 다루었다. 또한 노회내 목회자 은퇴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아메리츠보협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 치리장으로 친교모임 청원 등 논의 PCA 서남노회 제 65회 정기노회

PCA(미국장로교)한인총회 서남노회(노회장 조남 목사) 제 65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동부사랑의교회(담임 박승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는 서남노회 내 치리장로들의 친교 모임 허락 청원권과 서남노회 목사, 강도사 고시자에 대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 총회수의안 중 2개 통과...70세 정년 반대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25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현인 목사) 제 25회 정기노회가 15일 오전 10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렸다. 조정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예배는 채의탁 목사 기도에 이어 김현인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함께 하는 자”(빌

2:25-27)란 제목으로 “함께 하는 자란 예수님의 피로 행제가 된 자들이며 주님을 위한 군사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 노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렇게 함께 하는 자임을 재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현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있던 후 차병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간 노회는 남가주든든한교회 김홍철 전도사의 목사고시 합격 허락과 박대원 목사 이명과 교회가입, 양인수 목사의 가입을 허락했고 세 가지 총회 수의안 중 △한글개역개정으로 예배모범수정안 찬성 △목사 장로 시무 70세 정년 현안 반대 △교회, 노회, 총회 재산에 관한 수정안 수의는 찬성 결의했다. 또한 그동안 논의돼왔던 동문교회 건은 김상호 목사를 담임목사직 위 사직케 하기로 결의하고 임시당회장에 차병학 목사, 수습위원회(조명철 목사 이 박대원, 김성일 목사)를 파송해 동문교회 설교를 하도록 결의했다. <이성자 기자>



안수식에서 김홍철 목사가 노회 목사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있다.

##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김홍철 목사 안수식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현인 목사) 김홍철 목사 안수식이 20일 오후 3시 30분 남가주든든한교회에서 있었다. 노회장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안수식은 이진도 장로 기도, 설교 차병학 목사, 권면 김성일 목사, 축사 이병희 목사, 축도 차병학 목사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차병학 목사는 여호수아 1장1-9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전했다. 차 목사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김홍철 목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

리며 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수식을 갖고 노회장 서약과 안수기도가 있었으며 노회장 김현인 목사가 새롭게 세워진 김홍철 목사에게 성의 책의식과 안수패를 증정했다. 권면을 받은 김성일 목사는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라”고 권면했으며, 이병희 목사는 “오늘 이 시간의 감격과 기쁨의 심정을 끝까지 간직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하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안수식을 마치고 단에 오른 김홍철 목사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미국을 오고 신학을 하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앞으로도 신실한 사역자로 열정을 품고 섬김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최금순, 감미향 여성 뚜엣과 남가주든든한교회 EM 청년들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차병학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안수를 받은 김홍철 목사는 남가주든든한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며 감성에 사모와 슬하에 다 현, 하람 두 남매를 두고 있다. <이성자 기자>



오픈 청지기재단 주최 비영리단체 박람회 성황리에 열렸다

## ‘Love of Sharing’ 주제...20개 단체 참여 오픈 청지기재단 주최 비영리단체 박람회 성황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김옥희)이 주최한 ‘비영리단체 박람회: 나눔은 사랑’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굿사마리탄병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6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은 가운데 열린 박람회는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과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고 ‘God’s Image’의 워십 공연이 이어졌다. 정오부터는 장애인, 가정상담, 커

## 시론

《2면에서 계속》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Daniel M. Wegner)의 ‘사고억압이론’(Thought Suppression Theory)이 있다.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를 억누를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의식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얀 곰 생각’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 하얀 곰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룹이 더욱 하얀 곰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심결결과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대안을 떠올리도록 생각을 우회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점전환(Focused Distraction)’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음란한 사회 환경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했다. 어머니 미주복음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서병호 회장의 인사말과 한의준 목사가 기도했으며,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 지휘 곽종섭),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 지휘 전요셉),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지휘 이선경), 감사한인교회(담임 김명길 목사, 지휘 김명욱),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장수 목사, 지휘 조성환),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지휘 김원재), 글로발선교회(담임 김지성 목사, 지휘 강만석),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지휘 서병호) 등 8개 교회와 LA컨템퍼러리위십과이어(지휘 랜디김)가 출연해 은혜롭고 수준 높은 찬양을 선보였다. 또한 제 2회 남가주 어린이 찬양대회 초등부 1등 수상자 시각장애 아동 조수아우(솔리드트리 싱어즈)와 소프라노 최정원 자매가 특송을 불러 찬양합창제를 빛냈다. 이날 찬양제는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힐링캠프기도원 창립 1주년 기념예배 및 주님의제자교회 임직식이 20일 열렸다. 이날 예배는 이선자 목사가 ‘감사와 충성’(딤후1:1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공영식 목사가 축사, 그리고 명영관 집사가 특송을, 이주석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임직식에서는 명오주 집사와 박영희 집사가 권사임직을 받았다. <박준호 기자>

한신원조회 청원권, 한길교회, 동부사랑의교회의 목사, 강도사, 장로 고시 청원권, 그리고 홀리왕성교회 PCA 한인서남노회 가임청원권 등을 다루었다. 또한 노회내 목회자 은퇴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아메리츠보협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유니티 교육과 정보, 빈민구제 그리고 해외활동 등 5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한인 비영리단체 20개의 단체 박람회가 진행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과 한미가정상담소, 국제기아대책, 민족학교, 굿네이버스, 컴패션, 울타리선교회 등 비영리 단체들은 각각 그동안의 활동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타리선교회 나주옥 목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울타리선교회를 알리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길 오픈뱅크 회장은 “한인커뮤니티에 최초 열린 비영리단체 박람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서 비영리단체를 격려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 행사 가 지속적으로 열려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서이 초점 전환이 필요하다. 사도바울은 음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8-20)고 권한다. 음행의 생각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으로의 초점을 속히 전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일정한 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라(고후4:7-10).

# 동부교계 기사판



## 퀸즈장로교회 건축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0월 3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새성전을 위한 건축바자회를 갖는다. 10년이 넘도록 봄 가을로 열렸던 선교 바자회가 이번 가을에는 다민족을 위한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건축바자회로 계획됐다. 바자 품목은 예년과 같이 음식물과 의류, 생필품, 선물용품 등이다.

▲문의: (718)886-4040

##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로 아펜젤러 선교 130주년 기념예배 및 포럼이 열린다. △축하예배는 10월 4일(주) 오후 5시 뉴욕 후타리 신학교(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김홍기 목사(전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가 설교하며 감리교연합성가대와 뉴욕장로성가단이 특송한다. △목회자 신학생 포럼은 "웨슬리의 신학적 조명에서 본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아펜젤러기념 내리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일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홍기 교수(한국교회사연구원 부원장), 박대성 목사(베다니연합감리교회, MD), 이 행사는 뉴욕,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연합회와 뉴욕, 뉴저지 기독교대한감리회(KMC) 지방회가 주관한다.

▲문의: (201)952-6365, (631)292-2529

##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지휘 양재원) 제14회 정기연주회가 10월 4일(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은혜"라는 주제로 "불우이웃 돕기 및 선교기금모금 음악회"로 개최한다.

▲문의: (917)658-3181

## '오픈 커뮤니티 한국 문화와 음식 페스티벌'

뉴욕 롱아일랜드 햄스테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주최하는 제 6회 '오픈 커뮤니티 한국 문화와 음식 페스티벌'이 10월 4일(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개최된다. "감사, 감사, 또 감사! We go together"이라는 주제로 6.25 참전용사 가족들과 한국어린이 임양가족, 햄스테드 시장과 시의원, 지역 관공서 직원들과 주민들을 초청한다.

▲문의: (516)485-2102

## 사역자 청빙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가 유치부(파트/하프타임)와 영어고등부(하프타임) 사역자 2명을 청빙한다. 자격은 1)M.Div 과정 중이나 졸업한 자 2)취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제출서류는 1)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최종 학력 증명서 3)자기소개서 4)추천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은 9월 27일(주)까지 이메일(office@pilgrimchurch.org)이나 우편(Pilgrim Church 인사위원회/18 Essex Rd., Paramus, NJ 07652)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843-2222

## 뉴욕동원장로교회 청년부 찬양집회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 청년부 찬양집회가 10월 3일(토) 저녁 7시 "택한 나의 종아"(Whom I have chosen, 사41:8-10)라는 주제로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321-9199

## 체리힐장로교회 부흥사경회

체리힐장로교회(담임 전동진 목사)가 교회서립 35주년을 맞아 9월 24일(목)부터 9월 27일(주)까지 기념부흥사경회를 갖는다. 강사는 고무송 목사(전 기독교보사장). 시간은 저녁 8시, 새벽 6시, 주일 낮

▲문의: (856)354-9960

[정정] 본지 제1551호(9월 19일자) 10면(동부소식) 탑 기사 KAPC 뉴욕노회 제 77회 정기노회의 제목 "총회 전달 안건 3개 모두 거부"는 "총회 전달 안건 3개 차후 논의"의 오타였으므로 정정합니다.

# 뉴욕교협 제42회기 정부회장 후보 발표

## 회장 이종명 목사, 부회장 이만호, 김홍석 목사



왼쪽부터 회장후보 이종명 목사,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 김홍석 목사, 평신도 부회장후보 이상호 집사



KAPC 가든노회 제77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너희는 세상의 빛" ..선한 영향력을 행하라

### KAPC 가든노회 제 77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제 77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뉴저지 개척장로교회(담임 박형기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이원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원호 목사는 마태복음 5:14-16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 이 말씀은 첫째, 너희는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누리고 얻고 사는 자의 삶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나누고 희생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 셋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사명자란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는 뉴욕제일장로교회 당회장 조성훈 목사로부터 장로 2명 증택, 뉴저지개척장로교회 당회장 박형기 목사로부터 조문선 목사 원로목사 추대, 뉴저지성도교회 당회장 허상회 목사로부터 장로 2명 증택, 총회 재정협조(노회분담금) 등을 결의했다.

특히 노회원 중 박덕준 목사가 지난 5월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서 15년 만에 Ph.D 학위를 받았다는 소개와 함께 축하의 시간, 노회장의 감사기도가 있었다.

가든노회는 17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날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사제공: 가든노회)

## "나이 들어도 잘되고 경건하기를"

### 퀸즈성인대학이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이 지난 22일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5년 가을학기 수업에 들어갔다.

퀸즈성인대학은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받으며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학사일정은 먼저 경건예배를 드리고 건강체조, 수지침강좌, 스마트폰, 컴퓨터반, 생활중국어, 생활영어, 뜨개 교실, 미술반 등이 진행된다.

또 10월 20일에는 단풍관광 야유회도 가며,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휴강한다.

개강예배는 김용생 장로 사회로 기도 허경화 장로, 말씀 김성국 목사, 독주 김기호 장로, 광고 이양미 전도사,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잘되고 경건하기를"(요삼1:2)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나이들어서도 강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예배 후에는 새학기 학사일정과 교수들이 소개됐으며 학생들은 과목들을 등록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성인대학 개강예배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는 21일 제 42회기 정부회장 선거 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지난 18일 후보등록 마감을 마친 교협은 21일 입후보한 5명 중 4명을 최종후보로 발표했다.

회장후보로 현 부회장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담임), 부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와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 담임)(나이순), 평신도 부회장 후보에는 현 이사장인 이상호 집사(뉴욕성결교회 사무)가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부회장 후보에는 김전 목사(뉴욕대한국회 담임)가 후보등록을 했으나 교협 헌법 11조 부회장 임 후보자의 자격 4항,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에 걸려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김전 목사는 뉴욕교협의 임원 및 실행위원을 한 적이 없다.

감사는 후보 등록자가 없어 10월 2일까지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다.

선관위원장 이병홍 목사는 후보들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당부하며 금권선고 및 유언비어 배포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교협 제42회 정기총회는 10월 26일(월) 오전 10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미 남침례회 뉴욕한인 지방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신임회장 신석환 목사, 부회장 박진하 목사

###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32회 정기총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제 32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에벤에셀선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신석환 목사(부활의새빛교회 담임), 부회장에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 담임)가 선출됐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 모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회장 신석환 목사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지방회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부 경건회는 부회장 이재홍 목사 인도로, 기도 노기승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광고 총무 이선일 목사, 헌금기도 및 축도 박마이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는 야고보서 5:11-17을 본문으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1)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2)노아나 유같은 인내의 열매를 맺은 신앙의 선진들을 기억해야 하며 3)오래 참음으로 받을 복을 생각할 때 인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무는 회장 김재용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총무보고를 통

해 이선일 목사는 지난 1년간의 회기 사업인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송년모임 △투병중인 김두화 목사에게 격려금 2천달러 전달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야외모임 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선교부 보고를 통해 박진하 목사는 4천 달러 개척교회 지원 등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8월 10일부터 3일간 갖는 송년 글렌 하버 호텔에서 진행된 연합 목회자 가족 수양회에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휴식과 강의를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분과 노기승 목사는 칠레지 2015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4일간 파인힐 수양관에서 12개 교회 1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엘박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고 보고했다.

임원선거후 임원교체가 진행됐으며, 신안건 토의를 통해 다시 뉴욕에 돌아와 해돋이교회를 시무하는 송상철 목사의 회원가입 절차를 밟았다. 지방회와 새로운 임원진을 위해 기도한 후, 노기승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순서를 마친후 에벤에셀선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하며 친교를 나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성도교회에서 열린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 뉴저지성도교회 '옹기장이' 초청 찬양집회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가 설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저녁, 찬양선교단 '옹기장이'를

초청, 찬양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허상회 목사 기도 후 김성준 목사가 말씀과 간증을 전했다. 미국과 한국, 교회부흥을 위해 통성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찬양팀(팀장 한아름)은 소프라노 한아름, 메조소프라노 김현나, 베이스 김성준, 테너 김남용, 김보현과 엔지니어로 노을이 참여했다.

허상회 목사는 찬양팀을 소개하며 "사랑과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기사제공: 뉴저지성도교회)

##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조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Statement of Ownership, Management, and Circulation (Requester Publications Only)	
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1115
2. Total Number of Copies (Gross Press Run)	1115
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1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2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3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4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5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6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7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1.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2.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3.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4.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5.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6.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7.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8.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89.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90. Total Number of Copies (Net Press Run)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Outside of U.S.)	1115

# “분단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 10월 4일, 그날까지 선교연합 주관 LA 통곡기도대회

분단 70주년 LA통곡기도대회가 오는 10월 4일(주) 오후 4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손인식 목사)은 22일(화)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오는 10월4일 LA통곡기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송정명 목사는 “LA는 10년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통곡기도의 발상지이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남가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통곡기도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는 “11년전 통곡기도대회하면서 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통곡기도회를 진행해왔다”고 언급하고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 높고 가까워짐을 느끼게 된다. 올해는 분단 70년 맞이하는 해이니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중요한 기도회 될 것”이라 말했다.



LA통곡기도회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UTD-KCC 공동대표인 손인식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통곡기도회는 이산가족 공동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의 탈북 출연자 신은하 씨(전 평양민속예술단), 이소연 씨(전 북한여군상사), 최수향 씨(전 평양예술단)가 참석하고 국제인권대회(오슬로, 2015)에서 탈북스토리로 감동을 준 지성호 씨(현 NAUH 대표), 그리고 이민복 씨(현대북풍선 단장)가 참석해 생생한 탈북스토리 와 함께 기도문 이어지는 집회가 될 것이다.

주최 측은 대회당일 남가주 일대 20교회의 성가대가 연합으로 모이는 500인연합성가대가 참가해 연합 찬양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성된 기도문을 함께 나누며 장엄한 통곡을 함께 가슴에 끌어안게 된다.

또한 기도문을 작성해 대회당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대회 후 각 교회에 기도문을 전달해 예배시간 기도에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통곡기도대회를 통해 미 상하원 북한인권법 통과를 물론 중국에서 탈북자와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중국정부에서 국적승인을 하지 않아 무국적 상태에 있는)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법안통과, 그리고 UN에서 국제인권법연구소에 북한인권문제기구 설치를 하는 등의 열매가 있었다.

주최측은 대회이후 한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주요교단 지도자들에게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는 해외디아스포라 성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손인식 목사는 “올해가 분단 70주년이지만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분단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오는 2020년이 분단 70주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단 70주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로 볼 때 올해부터 5년간의 기간을 분단 70주년이란 개념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이번 통곡기도회는 올해 마지막 통곡기도회가 되는 것이지만 20년 까지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곡기도회는 지속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문의: (949)297-3788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플러신학교 공개 세미나

플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겨울학기 신학과 목회 강좌(공개세미나)를 '이머징 문화와 설교'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9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교 페이튼 101호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본교 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이며 등록비는 50달러. 등록은 온라인(kdmin.weebly.com/word)과 전화 및 이메일(kdmin@fuller.edu)로 받는다. 등록마감은 10월 14일(수).

▲문의: (626)5845651

### 한인가정상담소 후원의 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창립 32주년 후원의 밤이 30일(수) 저녁 6시30분 LA 다운타운 호텔(333 South Figueroa Street, LA)에서 열린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Keynote speaker로 배우 신애라 씨가 참석하며, 한인 정치인 Young Kim 하원의원, David Ryu시의원, 유명 코메디언 PK, 한인 2세 배우 Jun Kim, Lance Lim, 허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배우 겸 프로듀서 Chill Kong, 영화/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Grace Lee 등이 참석한다. NBC 앵커인 Jinah Kim이 진행하며, 2세 인디밴드 Bottle Gods의 특별 축하 공연과 여러 육선 상품들이 준비된다.

▲문의: (213)235-4845 캐더린엄 kyeom@kfamla.org

### 나성영락교회 제3차 북한선교학교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주최하는 제3차 북한선교학교가 10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등록비는 30달러.

▲문의: (213)200-6383 임학순 집사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5 밀알의 밤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첫날 행사에서 가수 바다가 객석에서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는 장면

##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 2015 밀알의 밤 성황

### 가수 바다, 장성규 시각장애 클라리넷주자 출연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한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5 밀알의 밤이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희 단장은 “밀알의 밤에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밀알의 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교실 봉사자와 선생님들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였다. 이번 밀알의 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됐다. 밀알의 밤을 통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작으나마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8일 저녁 7시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첫날 공연은 ANC온누리교회 HIS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유진소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밀알수여 찬양단이 수어찬양을 했다.

이어 사랑의 캠프 영상소개와 이종희 단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장성규 형제의 클라리넷 연주로 이어졌고 가수 바다가 'Dreams Come True', '옛사랑', '내발을 씻기신 예수', '약할 때 강함되시네'를 불렀으며 '나 항상 그대를'을 마지막 곡으로 불렀다.

이날 행사는 이영선 목사(미주밀알선교단 총단장)의 축도로 마쳤다. 밀알의 밤은 19일에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일에는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행사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와 필로스듀오 콘서트로 열렸다

## CCM루키 & 필로스 듀오 콘서트

### 더텐트 주최 파킹랏 콘서트 2회 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콘서트가 15일 이음카페, 19일 가주영어학교 내 특별공연장에서 열렸다.

19일 오후 7시에 열린 파킹랏 콘서트는 지난 8월 29일 열린 2015 CCM 루키 대회에 참가한 6명의 입상자들 무대로 꾸며졌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간사 레이첼김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파킹랏 콘서트는 정명훈, 장승기, 민유기, 예즈라, 강웅, 임정우 등이 출연해 크리스천 뮤지션으로서의 첫 번째 무대를 마은 것 선보였다. 또한 찬양사역자 강찬 전도사가 스페셜게스트로 참가해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다.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는 “CCM루키들의 공연을 텐트에서 하게 돼 좋았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성장하는 무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공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찬 전도사는 “루키들과 함께 공연해서 좋았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이라 공간이 아지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낯선 것 같았다. 앞으로 콘서트 무대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5일 이음카페에서 열린 공연은 10대 남매 기타리스트 필로스 듀오의 공연으로 열렸다. 필로스 듀오의 수준 높은 기타연주가 진행됐다. 중무형문화재 제40호 전수조교 홍용기 교수(백석예술대학교)와 가야금 병창 이수자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전수조교 고예진 선생이 잔조출연해 가야금 병창과 선비춤을 공연했다.

한편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의 다음 공연은 10월 31일(토) 오후 7시 가주영어학교에서 '홀리윈콘서트'로 열린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러브인뮤직 제8회 정기콘서트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렸다

##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 무료레슨

### 러브인뮤직 제8회 정기공연

러브인뮤직(대표 변홍진) 제 8회 정기연주회가 20일 오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연주회는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 무료로 레슨을 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러브인뮤직 앙상블(지휘 박윤재)과 파커벨의 '캐논 D장조',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이 연주됐으며, 박트리오, 소프라노 클로리아안, 바리톤 장상근의 무대, 그리고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씨가 아이리시 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바이올리스트 박윤재씨와 첼리스트 박수정씨가 함께 연주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공연은 자원봉사자와 무료 레슨을 받는 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을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후 마쳤다.

러브인뮤직 홍보이사 이영화 씨

는 “러브인뮤직은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는 단체이며 교사들이 전부 자비량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마다 학기가 마치는 6월경에 공연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윤재 선생과 박선규 선생이 부친상을 당해 늦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러브인뮤직은 매주 정해진 시간 LA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과 율타리선교회, 산타아나 키드웍스 등 5곳에서 무료레슨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러브인뮤직은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을 연주할 줄 아는 9학년 이상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및 악기기부자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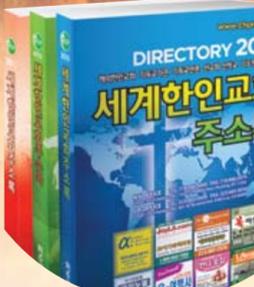
▲문의: (213)800-3207

〈박준호 기자〉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리스팅 및 광고 9월말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6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에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델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가 인랜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나눔의 행복’ ...하나님 사랑으로 뭉친 가족 인랜드교회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성황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지난 16일 오후 7시30분 델런트 신애라 집사 초청 간증집회를 ‘나눔의 행복’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신애라 집사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말씀전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부족한 면이 노출될 때가 많다. 하지만 부족함 그대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루하루 노력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결국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

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집사는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하는 길이 같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였다. 연기 자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려시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가야할 길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다.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게 됐고 컴패션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원에서 예언자와 예언자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 가족은 피할방을 섞이지 않아도 기뻐하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은 단어가 ‘위탁’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의 포스터게어 프로그램과 연결돼 포스터아동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 “복음 은혜 회복...새로운 100년 열어가자”

### 예장합동·예장통합 제100회 총회 기념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과 예장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은 16일 각각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장합동은 이날 저녁 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100회 총회 기념 영상 상영에 이은 세계선교기 입장과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기념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석지 이성택 목사와 피터 린백 웨스트민스터신학대 총장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됐다.

100회 총회의 역사, 감사, 회개

와 반성, 과제와 비전 등 4개의 주제를 담은 비전선언문은 총회장과 산하 기관장, 탈북자 대표, 어린이 대표 등이 단상에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역사적인 100회 총회를 맞아 ‘교회 개혁과 신회 회복’ ‘신앙 정체성 확립과 교육’ ‘미래지향적 질서 존중’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거룩한 부흥과 사회적 책임 회복’에 대한 다짐이 명시됐다.

특히 100회 총회를 맞아 장로교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의 후손, 기독교 민족운동 지도자 및 순교자의 후손, 개혁주의 신학 발전 공

로자 등 특별 공로자 36명에게 감사패와 공로 메달을 수여해 역사 계승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박무용 총회장은 “새로운 100년은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맞이해야 한다”며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조국을 이루고 사명과 비전으로 희망 가득한 100년을 열어가자”고 전했다. 기념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주기도문 찬양을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예장통합도 이날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100회 총회 감사예배를 드렸다. 총대들은 공동기도

를 하며 “교권 다툼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세대와 세대 간의 분리 속에서 주의 교회가 화해의 사자로 서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전 총회장인 립인식(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잠 16:7, 마 5:24)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대하셨다”며 “우리들이 누구나 똑같이 존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외국인 목회자들도 참석했다. 필리핀연합그리스도교회 사무총장인 루엘 노만 마릭 자 주교는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백성이 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내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 한국교회 기도의 불 지핀다

### 21일간 1000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강력하게 드려지는 은혜스런 기도회에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지난해 11월 1-21일 전국 264개 교회에서 동시에 드려졌던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는 같은 날짜에 1000여 교회가 참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회는 매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오후교회에서 진행되며 인터넷 생방송 중계를 통해 전국 교회가 영상으로 동참하게 된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오후교회에 다니엘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목사)를 두고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주최측은 “이 기도회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섬기고 기도의 불길을 다시 모으자는 영성운동이자 기도운동”이라며 “전국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같이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가 한국교회에 갱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교회가 1998년 처음으로 시작된 다니엘기도회는 2013년까지 16년간 매해 11월 초순에 실시되며 오후교회 부흥과 영적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했던 것이다.

현장에서 이를 매년 지켜본 오후교회 김은호 담임목사는 이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강력하고도 뜨거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오후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저희 교회는 심각한 교회 위기와 슬픈 어려움을 이 다니엘기도회로 극복하고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이 큰 건물을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 중심축이 되어 준 다니엘기도회를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함으로 그 응징력을 높이고 영적부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목사는 “기도가 사라져 가는 한국교회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순수연합운동이자 모든 참가교회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는 성화한 점에서 강력한 기쁨부음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한다”며 “특히 강사를 초청하기 힘든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등에는 영상이긴 하지만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선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니엘기도회는 보편적으로 개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21일간 새벽기도회나 오후 기도회를 통해 해오던 연속 행사였다. 그러나 오후교회의 다니엘기도회는 교파나 교회의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찬양팀을 초청한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이번 18차 기도회에는 ‘건강한 한국교회, 행복한 한국교회’를 꿈꾸며, 지역 교회의 색채를 철저히 배제하고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기쁨부어있는 기도회로 준비됐다.

전국적으로 다니엘기도회에 함께 할 교회들을 모집하여, ‘Dan-net’이라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훈련된 중보기도팀을 통해 각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의 포문을 열고 기도 중이다.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와 함께 건강한 영성을 불붙기 위해 힘쓰는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오후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탁월한 강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찬양팀을 섭외하여 기도회를 섬기고 있다.

특히 이 다니엘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개교회의 참가비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현수막과 교회용 전단지 등을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교회 50곳에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교회를 실시했고 LED 교회간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지난해 모인 오후교회의 다니엘기도회 헌금 4억8000만원은 전액 헌금과 도움, 선교가 필요한 160여곳에 나누어 전달됐다.

“이번 18차 다니엘기도회에 현재 800여 교회가 참여 신청을 해 왔는데 11월1일 전까지 1000교회가 훨씬 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주 등 해외교회 신청도 점점 늘고 있으며 해외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기도운동에 함께 참여해 기도할 것임을 알려 오시곤 합니다.”

다니엘기도회 준비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주성하 목사는 “기도회를 앞두고 소식지를 발간해 신청 교회에 보내드리고 있으며 전국을 16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별로 서포터즈준비기도회도 열고 있다”며 “현재 준비위원회는 80명의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교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진행을 돕고 부족한 부분들을 열심히 채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18차 다니엘기도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전국 1000여개 교회로부터 기도제목을 일일이 받아 수십만 명의 예배자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연합을 맛보게 하자는 것이다.

올해도 최고의 강사진과 찬양자들이 21일간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드린다. 강사는 목회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오던 연속 행사였다. 그러나 오후교회의 다니엘기도회는 교파나 교회의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찬양팀을 초청한 영성

## “초·중·고 교과서 20곳서 동성애 옹호”

### 35개 교계·시민단체, 동성애 조장 교과서 규탄서위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피켓을 든 20여명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김규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연한 표정으로 줄지어 섰다. 기자회견을 인도한 김 사무총장은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며 “건강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과서(표 참조)를 만드는 정부와 출판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 등 35개 교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동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초·중·고 도덕과 사회, 사회문화, 보건 등 총 13종의 교과서 20곳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돼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학부모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 타락한 문화인 동성애가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교과서마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겐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며 즐겨도 되는 좋은 성문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

## 각 교단 총회

### 신용주씨·인터콥 경계 참여금지

#### 예장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17일 충남 천안 동남구 총절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 셋째 날 오후 회무를 진행하고 이단 문제 등을 논의했다.

총회는 은혜로교회 신용주씨에 대해선 교단 차원에서 경계하고(교단 소속 교회나 교인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인터콥에 대해선 이단성에 따른 참여금지 결정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개별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터콥이 제시한 조치대로 확실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참여를 금지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1년간 이단성을 연구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동성애 옹호·조장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속에서 성격적 신앙수호를 위해 교단 전략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은 사무총장에게 맡겨 1년간 연구기로 했다. 개인과 교회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 부채에 대한 성격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1년간 연구·보고하기로 했다.

총회는 국내전도 활성화를 위해 국내전도국을 신설하고 군북 후보생에게는 7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총신대 감독권 강화

####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이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는 청원을 가결하고 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총신대가 총회의 직할 하에 있다는 것’ ‘정관 변경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재산의 관리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재단이사 선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 총회의 허락

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17일 속회된 회의에서 보고에 나선 김진웅 총회결의시행위원장은 “총회가 재단이사회 정관에 직할 및 감독의 근거규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 재단이 사장, 재단이사 일부 등에 대한 처벌을 현의한 노회들도 있어 관련 결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교인 수 줄고 교회 늘어

#### 예장합동

증가해 2013년의 교회 수 증가율 0.5%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예장합동 교인 수는 2013년 285만7065명에서 2014년 272만1427명으로 13만 5638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목사 수는 2만2216명에서 2만2646명으로 430명 늘어났고, 전도사 수는 1만525명에서 1만1153명으로 6% 증가했다. 교회 수는 1만1593개에서 1만2078개로 늘어났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제100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년간 교인은 전년 대비 4.8% 줄고 목사는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9회 총회에서는 2013년 1년간 교인이 4.6% 감소하고 목사가 1.9% 증가했다고 보고했었다.

교회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소속 교회 수는 4.2%

###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해산 촉구 결의

#### 예장합동

찬송가공회의 해산을 촉구기로 결의했다.

예장합동은 제91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법인 찬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서 총대들은 파송이사인 서정배 전 총회장과 김부영 장로에 대한 처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 목사는 전 총회장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하고 증경총회장단회에서 제명됐다. 김 장로에 대해서는 소속 당회에 처리를 지시하고 전국장로회연합회에 김 장로의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교단이 운영하는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총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레마선교회 해제 여부 1년간 보류

#### 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레마선교회 이명범씨에 대한 이단 해제 논의를 내년 총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17일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이씨에 대한 이단 해제 결정을 1년간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총회에 ‘이씨를 이단에서 해제해 달라’고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경도노회 신영근 목사는 “이씨의 신학사상을 검증하겠다고 한 것이 2013년인데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찬반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든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며 “1년간 더 연구하고 다음 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곧바로 총대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가결했다. 이씨의 이단 해제를 놓고 찬반 양측은 논의 과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단 해제 청원에 찬성한 한 총대는 “이대위에서 전문위원들이 이씨의 이단 여부를 조사해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적·윤리적 문제로 이단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입장에선 다른 총대는 “이씨가 회개를 운운하는 건 이단 해제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맞섰다.

###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 금품수수 의혹 명단 공개

####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16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개최 중인 제100회 총회 셋째 날 회무에서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총대들은 이날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회원권은 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하고 확정되면 해당 노회

에 맡겨 5년간 총대권을 정지토록 하며, 노회가 불이행시 노회 회원권을 정지하고 노회 폐지도 검토한다’ ‘사실이 확정된 자들은 은급재단이사회에 맡겨 이사장 명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한다’ ‘은급재단 이사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자들을 교체하기로 한다’ ‘납골당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이 완료된 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매각처리하기로 한다’ 등을 결의했다.

### 역사교과서 최종 개정안 이달 말 확정·고시

#### “기독교 서술 없거나 달랑 몇 줄...시정해야”

‘한국교회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개신교) 관련 서술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근대화

와 민주화, 민족운동 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다른 종교에 비해 내용이 턱없이 적어 ‘종교편향’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대위가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래엔(구 대한교과서) 교과서는 삼국·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부분에서 불교유입과 대중화 과정 등을 6쪽(49-51쪽, 93-95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부분에서는 2쪽(160-161쪽)을 할애해 정감록과 천주교, 동학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반면 개신교는 근대국가 부분에서 단 3줄(232쪽)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표 참조). 이 교과서에는 ‘개신교는 미국과 수교 이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차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선교과정에서 민중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근대교육 발전과 서양이슬 보급, 양성평등 의식 전파 등에 기여했다’고 기술돼 있다. 공대위 전문위원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지나치게 압축해서 미미하게 서술한 것도 모자라 내용마저 잘못됐다”며 “실제로 민중들은 개신교를 적극 수용했고, 유교양반 계층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타 교과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금성, 지학사, 비상교육, 두산동아, 리베르, 교학사의 교과서에도 개신교 관련 언급은 총 2-8줄이 전부다. 반면 불교 5-8쪽, 천주교·동학·정감록은 2-3쪽에 달했다.

공대위는 “현행 교과서에서 종교 편향이 명백히 나타나는데 시정은 커녕 2015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에도 개신교 관련 서술이 부실하게 담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공개된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선 전근대사에 등장한 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 풍수지리설에 대해 그 역할을 인정하고 서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근현대사에 천주교와 동학 관련 내용은 있지만 개신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공대위 전문위원 이은선 안양대 교수는 “기독교는 선교뿐 아니라 독립운동, 교육·계몽, 의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

했다”며 “미션스쿨들이 영어교육은 물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며 민족교화와 계몽, 의식형성에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공대위는 “한국교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분량으로 서술해 달라”는 것”이라며 “편향 없는 공정한 역사 서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현행 교과서의 종교편향과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팸플릿을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 앞에서 배포했다. 공대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사인학자들이 전문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 (7)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 7. ISIS는 참 이슬람이 아닌가? "테러는 참 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 테러, 특히 ISIS의 만행에 대하여는 이것은 이슬람의 전통이나 교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세계 언론과 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9.11테러 때 한국의 언론들이나 좌익 그룹들은 미국의 일방적 세계지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기었다. 이슬람 테러를 반미, 반서구 감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로 초점을 두었다. 마치 알 카에다 테러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015년 3월 일본 NHK는 큰 활자 자막으로 "IS는 이슬람과 다르다"는 주제로 IS테러를 심도 있게 다루었

지를 경험하였다. 한국은 다만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렇다면 남미나 아프리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테러가담자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ISIS는 이슬람이다"

서방 세계가 이슬람 테러와 이슬람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한자는 "사탄의 본문"(The Satanic Verse) 저자 살만 루시디다. 그는 서구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슬람과 이슬람 테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는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지지하며, 수만 명의 무슬림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무슬림들은 이미 언급한대로 우월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 세계를 이겨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가 후퇴, 자존심이 무너졌다. 셋째, 오스만 투르크가 칼리프 국가였는데 그 제도가 붕괴된 지 90년이 넘었다. 그래서 칼리프 부활을 선언한 IS를 동경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다. 이라크에서는 수니파들이 IS를 환영하는 모습이 크게 방영되었다. 그래서 시아파와 이라크 군대와 쿠르드르 구성된 이라크 군은 결국 IS를 격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5년 3월 타임지의 한 기자는 지하드 주장자 Aniem Choudary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계시니라 △9:5: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을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리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많은 성서의 백성들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자 불신하기를 원하다. 이는 진실이 그대들에게 명시되매 그들 스스로가 시기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간과할지니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 우월주의, 이슬람 자존심 회복위해 칼리프 부활 선언한 IS 동정 희생제물로 사람 죽이는 건 코란의 명령... "불신앙자는 죽이라"

다. 그러면서도 아랍국가는 자체 분열로 붕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작년 8월 말레이시아 전 수상 마하티는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가 아니라 평화의 종교라고 역설하였다. 최근 이슬람 내부에서도 알 카에다나 IS는 코란과 무하메드의 생애를 잘못 해석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무슬림 국가들은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우디의 수니 지도자 알 타옌은 2015년 2월 테러는 코란과 하디스의 잘못된 해석이 누적된 결과라고 하면서, 수니파 요르단 조종사를 죽인 IS는 코란이 규정된 십자가형이나 팔을 절단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사들이 성전을 축구하는 물라의 호소에 응답하여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는가?"고 반문한다.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는 호주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노골적으로 이슬람 테러는 이슬람의 본질이라는 식으로 말한다. 2014년 9월 호주 경찰은 IS가담 용의자 15명을 체포하였다. 법무부장관 조지 브란디스 상원의원은 모호하지만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테러가 이슬람의 본질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은퇴교수 클라이버는 이슬람 전문가로서 이슬람 테러나 IS는 이슬람 종교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는 전 세계 무슬림의 10-15%는 온건, 개혁지향적 무슬림이고, 10-15%는 전투적, 극단적 무슬림들로 언제든지 테러에 가담할 수 있으며, 나머지 70%이상은 의사 전통적 이슬람(quasi-traditional Islam)으로 분류하였다. 의사 전통적 이슬람은 명목상 무슬림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대량살상과 희생제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코란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슬람의 대부분 사람들은 코란의 테러를 권장하는 구절들을 멀리한다. 지하드는 신자의 영적인 투쟁만이 아니라 죽이라고 코란은 가르친다는 것이다. 카렌 암스트롱의 표현을 빌리면 코란에는 "칼의 본문"(Sword Verses)이 많다. 중요한 내용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90-192, 너를 대적하는 자는 신을 위하여 싸우고 그들을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억압은 살해보다 나쁜 것이다. △2:193: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라. 이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들이 박해를 단념한다면 우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적대시 하지 말라. △2:194: "살생이 금지된 달은 성스러운 달이거늘 살생을 금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공격할 때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니라." △2:216 비록 싫어하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성전이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코란에 지하드(성전)는 약 46회 나온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것 외에도 코란은 성전을 촉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코란 3:28, 85, 118, 142, 155-8, 169, 4장 84, 95-96, 100-101, 144 등. 성전에서 죽거나 희생할 경우 물론 코란은 하늘의 보상을 약속한다. △3:157: 하나님의 길에서 살해 당했거나 죽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용과 자비가 있을지니 이는 생전에 축적한 것보다 나으리라. △3:158: "만일 너희가 죽었거나 살해당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빈 라덴은 이상의 구절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투쟁과 살해는 신의 예정이라고 강변한다.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은 동일한 책의 종교의 사람들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가르친다. 반면 불신앙자는 죽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범주에 들기도 한다. 이슬람의 타피르라는 교리는 무력 사용을 권장한다.



## 캐나다

몬트리올외향선교회

선교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난 6개월간의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몬트리올 항구는 매년 한국, 조선족 등 세계 80여 개국에서 15,000여명의 선원들이 방문합니다. 선원센터에는 8-9명의 사역자들이 초교과적으로 이들을 상대로 협력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 1. 방문 선교

모든 사역자들은 선박과 선원센터를 오가면서 봉사합니다. 목회자들은 센터내의 예배당과 선박 공간을 이용해 기도, 예배 등을 인도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선원센터직원들과 함께 세계에서 모여든 선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조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임금체불, 인권문제, 건강문제, 통번역 업무, 시장안내 등 다양합니다.

### 2. 의료 선교

목회자이자 의료인(한의사 겸 자연의사)인 저는 1997년부터 선원센터와 진료소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의료선교와 목회상담을 합니다. 주로 아시아인 선원환자들을 진료하며, 선원 중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종합 병원에 안내해줍니다. 특히 한국과 조선족 선원들은 부식상점 안내 및 관광은 물론 지역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 할 수 있도록 알선해줍니다.



### 3. 항구를 방문한 한국선박

Fidelity II(3만6천톤 유류선, 선장 전성복, 일항사 서동일, 기관장 고동철, 일기사 김세환 및 필리핀 선원 등 23명 승선)에 백명가 권사와 함께 선박을 방문하고 선교지, 미주크리스천신문, 과일, 상추 등을 전달하고 기도하며 아픈 선원이 있는지 살폈습니다(7월 21-23일).

### 4. 기타 자원봉사 및 행사 참석

1)몬트리올대한노년회 무료진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무료 진료를 실시함. 금년이 5년차로 아픈 노년들을 무료 치료해 주었으며 노년대학에서는 건강강의를 맡았습니다(5월 1일 - 7월 31일). 2)원주민부락 한방무료진료: 퀘벡주 북쪽에 위치한 락시몽과 락도조아에서 한인연합교회(김진식 목사) 선교단들과 협력선교를 하면서 6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때로는 기도해주었습니다(7월 4-10일).

### 5. 선원센터를 방문한 단체

1)한국서산교회(주철호 목사) 청년선교단 16명이 본 선교회를 방문하고 선원들과 대화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원센터의 자크 목사와 바바라 진도사는 이들 선교단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선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단들의 숙식을 제공해준 몬트리올 호산나교회(허정기 목사)에게 감사드립니다(6월 25-26일). 2)이글스필드한인교회(고영민 목사) 청소년 선교단 35명이 이정우 전도사의 인도로 몬트리올 선원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선교문화 체험 설명도 듣고 선원 및 사역자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선교단들은 낮에는 거리선교를, 저녁에는 자체 모임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의 비전을 펼쳤습니다. 교회부속 교육관과 부역을 빌려준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김진식 목사)에 감사드립니다(8월 17-20일).

김광오 선교사 드림. 이메일: kwangohkim@hotmail.com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10월 22일(목) ~ 10월 31일(토)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갈멜산기도원 신년사예배 1~10일 갈멜산기도원 신년축하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회기도회(강화) 3일 인천강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동동인교회(김영목사) 11~13일 평동동인교회 부부사랑 재부흥회 15일 평동동인교회(김영목사) 18일 평동동인교회(김영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외 영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04차) 15일 서문교회(이철호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촌교회(윤석호목사) 27일 복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형준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신명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협동)대부서울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26일 갈멜산신앙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온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인산 시인교회(이성민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우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일 갈멜산 강회기도원(강화) 8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 ~17일 온영교회(노경현목사) 21일 예우교회(류병목사) 22일 ~24일 (협동)부수원교회(고영순목사) 25일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청운교회(김대석목사) 20일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29일 천마교회(유광석목사) 29일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일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일 ~12일 나사렛성경연구원(안양) 17일 ~20일 GST 신학생훈련(05차)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일 ~8일 청운교회(김대석목사) 14일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일 ~7일 평동동인교회(이철호목사) 11일 ~14일 원성교회(김교문목사) 19일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11일 성상성교회(이호연목사) 15일 대한교회(윤영민목사) 18일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대한교회(윤영민목사)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30일 강사예교회(전종남목사)	1일 ~2일 강사예교회(전종남목사) 7일 ~10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3일 ~21일 GST 미션리서치(캠프보이) 27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8일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5)



**엄예선 박사**  
(풀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 2. 사모의 역할, 고충들, 자기점검 기준들

1) 사모의 역할  
Ruth White(1987:12)는 사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회자 아내의 아무도 명시해주지 않는 역할을 자신의 남편의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무보수로 일하기를 요청받는 내가 아는 유일한 여성이다."  
목회자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목회자 아내의 공통적인 중요한 역할은 남편의 목회를 마음으로 말로 영적으로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 아내가 남편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부르고, 어떤 교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기 상태의 불안함, 목회자와 사모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와 공격과 무례함과 비합리적인 기대와 평가, 때로는 남편목회자의 이성문제, 부교역자 사모의 경우 다른 동료 사모나 소위 왕사모님들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위기의 성도들을 상담할 때 느끼는 성도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간접적 외상 스트레스, 경제적 고통, 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 혼란반은 경험이 없는 교회 일들을 해야 하는 압박감, 사모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교회 안에서 아무하고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고독함, 언제고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모들은 위기 속의 성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데 흔히 많은 성도들의 문제 이면에는 윤리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모 자신의 삶이 남 앞에서 윤리적으로 흠 잡힐 데가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2) 나에게 목회자 아내로서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있나?  
사모는 목회자 아내의 자격으로 주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섬기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매우 독특한 임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섬기는 역할이므로 특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고귀한 직분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분명한 소명의식과 자부심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사모들은 성도들에 의하여 쉽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모들은 무례한 성도들의 무리한 요구들에 끌려 다닐 수 있다.  
목회 현장의 사모의 자아존중감을 끌어 내리기 쉬운 곳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은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동료 사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3) 나는 목회자 아내로서 양들에 대

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7) 나는 영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차원에서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나?  
(8) 나는 좋은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있나?  
3. 건강한 목회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지침들  
1) 목회자는 교인들의 목자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가정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자.  
2) 목회자는 자신의 첫 번째 목회 동역자는 사모임을 항상 잊지 말고 사모와 자신의 목회철학과 소명의식을 나누고, 사모를 보호해주고,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사모의 말에 더 무게를 두자.  
3) 사모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자.  
4) 함께 영성을 개발해 가자.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보고는 성공적인 결혼은 깊은 우정과 부부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영성이 두 가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다(Olsen and Stephens, 2001).  
5) 서로 best friend가 되자.  
6) 언약과 헌신의 기초위에 부부관계를 쌓자.  
7) 한몸됨과 개별성의 밸런스를 잘 이루자.  
8) 서로의 성화과정을 돕기 위해 때로는 서로의 나쁜 선지자가 되자.  
9) 배우자가 은사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자.

## 사모 = 명시 않는 역할을 남편직장에서 풀타임 무보수로 일하기 요청받는 자리

### 사모는 때로 목회자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과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가져야

하는 가는 다른 문제다. 그것은 목회자 가정의 여건과 사모의 여건과 목회자의 선호, 교회의 바램 등이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어느 교회에 부름을 받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아내의 역할을 정빙과정에서 그 교회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한인교회는 한사람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면 두 사람의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2) 사모의 고충들  
이동원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엄청난 부흥의 불길들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생산했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사모들 중에서 그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예를 들면 미주크리스천신문(The Korean Christian Press) 2006년 4월 6일자 기사 중 한인교회 사모 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 중 67%가 우울증을 경험했으나 대부분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11.1%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한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모들의 고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함, 일을 안해도 욕먹고 해도 욕먹음, 교회일과 가정일 사이의 갈등, 남들같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베풀지 못하는 고통 등이다.  
3) 사모의 자기 점검 기준들  
사모들이 이러한 고충들을 잘 극복하면서 사모직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똑같은 질문들을 사모들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중요한 측면들 중의 하나는 윤리의식이다. 남편목회자를 바로 도우려면 사모님들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목회자의 윤리의식보다 더 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모는 남편이 전임 목회자의 전철을 밟아서 목회비를 책정된 금액보다 몇십만원 더 가지고 왔는데 남편으로 하여금 그 돈을 돌려주도록 권면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한인교회 내에서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들은 사모들이 올바른 권면을 적시에 잘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사모들의 분명한 윤리의식은 올바른

한 목자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사모는 흔히 남편 목회자보다도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양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4) 나는 올바른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나?  
한인교회 내에는 때로는 사모의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큰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신자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질병, 등을 귀신들림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든가, 부부관계를 상호사랑과 상호복종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주장하는 신학은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  
어느 교회에서는 우울증에 걸린 한 여 신도를 심방하던 중에 사모가 "귀신들려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축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여 집사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적전쟁운동이 활발하다는 말을 들었다.  
(5) 나는 필요할 때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나?  
(6) 나는 건강한 목회자 가정을 세우

10) 관계성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의를 실현하자.  
11) 자녀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자.  
12) 성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자.  
13) 의사소통을 잘 하자. 전후적이거나 회피적인 의사소통을 피하고 협조적인 의사소통을 하자.  
14) 갈등과 위기상황에 바로 대처하자.  
15) 안식과 축제의 시간을 갖자.  
16)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자.  
17) 부부관계의 성장을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하자.  
18) 자녀양육을 잘하자.  
부모가 결혼 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이들은 stress hormone(아드레날린)을 많이 방출하고 뇌의 구조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다는 연구가 있다(Gottman, 2000). 목회자 자녀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48%가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주요 이유들은 교인들의 판단과 소문, 목회자 자녀에 대한 기대, 아버지의 이중성으로 보고되었다(목회와 신학 편집부, 1999).  
이메일: yeasunkim@gmail.com  
(계속)

## 캄보디아ITCS 학장 김현 박사 취임



ITCS 김현 학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취임식을 마치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난 10일, 캄보디아 현지인 신학교육기관인 ITCS(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총장 장영춘 박사) 학장으로 김현 박사가 취임했다.  
본교는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ITCS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김현 학장 취임과 함께 ITCS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 후임 이사진을 구성하고 스폰서 교회와 협력할 목자들이 찾기를 위해 기도하며 온 교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ITCS는 2007년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 출발했으며 부총장에 여운세 목사, 학생처장으로 전화령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TCS Cambodia.org)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 ITCS)

## KAPC 동남아노회 제 14회 정기노회



동남아노회 제 14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동남아노회(노회장 전대구 목사) 제 14회 정기노회가 지난 7일 오전 10시 마닐라제자교회에서 시작됐다. 이 정기노회에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영철 목사, 총무 공재남 목사가 참석했다.  
노회는 총대 26명과 가족과 봉사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전대구 목사의 사회로 우상호 목사(회록서기)의 기도, 조성일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마닐라제자교회 관현악단의 찬양에 이어 총회장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성찬 예식은 공재남 목사(총회 총무)의 집례로 진행됐다.  
이어서 회무처리는 노회장 전대구 목사의 사회로 개 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39회 총회를 다녀온 내용을 노회장 전대구 목사가 보고하고 신입회원을 심의했다.  
노회가 폐회한 후 총회장 일행과 노회 임원들은 총회가 인준한 카비테 PTS대학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기도 했다.  
(기사제공: KAPC 동남아노회)

"지금 교회교육 현장은 위기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교회교육 현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열정과 실력, 교회교육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교육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강사 김만형 목사**

- 총신대학교/합동신학대학원, (美)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종교학 석사(M.R.E), 교육학 박사(Ph. D.)
- 전) 사랑의교회 18년 사역(수석부목사),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원 교수역임, 총신대, 총신대학원, 아신대 출강
- 현) 친구들교회 담임목사, (재)에듀넷교육개발원 원장, 합동신학대학원교수, 파이디온선교회 이사
- 저서 : NEW SS 혁신 보고서, SS 자녀교육 보고서, 예배 속 드라마 1/2, 크리스천 축제 1/2/3

■ 사역자와 교사들이 꼭 읽어야 할 교회교육 필독서 ■

**New SS 혁신보고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SS혁신보고서',가 개척교회의 임상을 거쳐 주일학교 사역의 새로운 중흥을 사모하며 'New SS혁신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검증된 책입니다.

김만형 저 | 신국판 변형 452쪽 | 17,000원

**SS 자녀교육보고서**

주일학교 사역의 성공은 어른들을 깨워 함께 동역하는데 있습니다.

저자가 사랑의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 관련 어른들을 일깨웠던 설교로 교육설교의 노하우를 담다!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자녀교육은 이렇게 일깨운다!

김만형 저 | 신국판 256쪽 | 9,000원

**에듀넥스트**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위기에 처한 교회교육! 지도자와 교사가 교회교육의 목표와 결과를 하나로 명확히 하고 한정된 인력과 자원, 노력을 집중하며 함께 교육자의 사명을 경주해야 합니다.

교회교육의 이론과 현장을 이어주는 이 시대 교회교육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김만형 목사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전략세미나와 교사훈련원이 이를 도울 것입니다.

**INVITATION**

이제 당신이 새로운 주일학교 부흥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4)

## 7. 안인교의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안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8)

오늘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세 번째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회심의 필요성”을 숙고하는 일이 교육의 원천과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반적인 틀거리를 아우르는 기초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신학적 기초는 교육내용의 근간이며, 전체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최소한 이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

를 경험해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타락-구원-완성”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소개된 바도 있는 내용으로서, 스스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법 익숙할 법한 그리고 익숙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구속사(Redemptive History)”의 관점으로 관통하여 설명한, 즉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Salvific Grace of God in Christ)”의 견지에서 신학적으로 풀어낸 기독교의 핵심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금 의아하다 느

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어떻게 그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렇듯 전체적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의 구속사역 향해를 알고, 인간의 역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 때에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교회 교육내용의 근간 전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

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셨습니다. (2)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3)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죄 없고 흠 없는 독생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고 질병과 깨어짐을 치유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의 완전한 소멸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4)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며 그리스도의 가치들로 다스려지는 삶 가운데 그 나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스스로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체적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인식하는 신학적 기초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확고하게 말입니다. 우리 교육의 내용은 성경이 그 기반이며,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로부터 나오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교리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학적 교리도 성경에 앞설 수 없으며, 모든 신학적 교리와 작업 및 해석 작업은 성경에 기반하며 또한 그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 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체적인 구속사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인식하는 신학적 기초 또한 전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이라 가르쳐야 할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인생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보여 주고, 삶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경건 곧,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한 말씀을 따를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셋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2). 그리고 신자는 현실 생활에서 그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망을 그에게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을 자처럼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금 재림을 맞을 준비하라(벧후3:14-16)찬351장

연이어 사도는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첫째, 주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청의를 얻은 성도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둘째,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 야고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 월 타락의 위험성(벧후2:17-22)찬259장

첫째, 타락은 의식에서 시작합니다(17). 사도는 여러 비유를 통해 외식자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17). 물없는 샘처럼 그는 진리를 잃어 버리고 결단됨으로 살아갑니다. 헛된 자랑으로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악할 뿐 아니라 악한 자를 쉽게 유혹해 멸망케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재미를 보았으나 일시적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침내

어둠에 열매입니다.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셋째, 처음보다 더 심한 결과가 찾아옵니다(20-22). 옛 죄를 끊지 못해 그 노예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가장자리에서 서있는 곡예사와 같은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넉넉한 진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 화 성경을 주신 이유(벧후3:1-17)찬483장

왜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1-2).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교묘한 말로 신자를 유혹하는 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하며 견고히 세워줍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계시가 신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단교훈을 방어하기 위해 주셨습니다(3-5). 여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란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창조도 재림도 부인해 신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문화된 계시를 주셔서 그 위에 견고히 서서 항상 빛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심판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6-7). 성경은 분별의 기준도 되지만 최종 심판의 도구이며 기준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위에 사는 자는 그만큼 복됩니다. 그 길로 나갑니다.

###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벧후3:8-10) 찬257장

창조의 사랑은 섭리의 사랑이며 그리고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는 참음과 견디시는 사랑입니다(8). 사람은 급히 허거나 치우고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견디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역사가 바로 이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신실함을 보이는 사랑입니다(8). 오랜 세월을 참다가 병

나기 쉬운 인간의 일시적 인내와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고 모세는 아침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입니다(9).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 목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벧후3:11-13)찬408장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출연히 오는 재림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10). 예고 없이 임하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평상시에 준비와 훈련이 없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령은 금히 오는 큰 긴장 속에서도 잘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11). 재림의 사건을 앞둔 신자는 무엇보다

경건 곧,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한 말씀을 따를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셋째,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2). 그리고 신자는 현실 생활에서 그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망을 그에게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을 자처럼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 금 재림을 맞을 준비하라(벧후3:14-16)찬351장

연이어 사도는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첫째, 주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청의를 얻은 성도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둘째,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합니다. 야고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연단된 인격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무지한 자란 성경의 진리를 인간 욕심 중심으로 풀거나 억지로 푸는 사람들 곧, 이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를 바울의 글로 보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은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벧후3:17-18)찬378장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해 그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첫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권합니다. 거짓교훈은 항상 우리로 은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즉, 인간행위구원 혹은 자력종교의 자리로 전락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교묘히 방해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고 더 큰

원적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권합니다. 이는 우리로 행위나 은혜나 혹은 자기나 그리스도나, 혹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혹은 세상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로 구분시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권합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곧, 영생 안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이런 에덴동산의 즐거움을 붙들어야 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ksolidrock@gmail.com</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후 6:00(화-토)</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90 Wilshire Blvd, 1505, Los Angeles, CA 90010</p>	<p><b>남가주사랑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운이예배: 오후 1:20 영양권 (장소: KDC, 컨템포럴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운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p><b>동원교회</b></p>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17 www.gkpc.org</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에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2인화) 박경희,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미주양광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949)857-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영양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청운이예배: 오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202-A Torrance CA, 90505</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청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복음성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8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얼바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b>윌셔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p> <p>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b>좋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ocalsam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ornestonchc.org / e-mail: pastor@cornestonchc.org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주여,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 NA 통곡기도대회

## 통일의 그 날까지 통곡하며 부르짖는 남가주 교회들과 성도들의 연합기도대회

- 일시: 10월 4일 (주일) 오후 4시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 지역별 버스 운행 안내

#### ※ 오렌지 카운티 지역

- 출발일시: 10월 4일(주일), 오후 2시30분 출발, 예배후 같은 장소로 리턴.
- 출발장소: 가든글로브 아리랑마켓 주차장:
- 출도착 주소: 9580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949-297-3788

#### ※ 밸리지역

- 출발일시: 10월 4일(주일), 오후 2시30분 출발, 예배후 같은 장소로 리턴.
- 출발장소: 은혜와 평강교회 주차장(곽덕근 담임목사님)
- 출도착 주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949-297-3788



### 이만갑의

## 그녀들이 생생히 밝혀 줄 탈북 스토리!



신은하  
전, 평양 민속 예술단



이소연  
전, 북한 여군 상사



최수향  
전, 평양예술단 연주자



지성호  
현, NAUH(나우)대표



이민복  
현, 대북 풍선 단장

- 주관 : 그날까지 선교연합(UTD)/해외3천인목사단  
(공동대표 :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손인식 목사)
- 주최 : 남가주 모든 한인교회들의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일동
- 문의 :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T) 949-297-3788 email : utdusa21@gmail.com

한국인 핏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동기도 - "주여,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